朝鮮日報
夕刊 十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杭州灣上陸新銳軍
青浦縣城占領
모뉴멘트路制壓코 虹橋飛行場도占領
崑山一帶敵陣을猛爆

【上海十日發同盟至急報】松江을奪取한上陸新銳部隊의一部는 昨夜 松江西北方六粁의余山鎭의 天文台를 夜襲하고 繼續하야鐵橋에進擊하야 今早曉青浦에殺到하엿다

【上海十日發同盟至急報】追擊第二日을마지한 我軍의急追의鋒을 늣치지안코 曉明을利用하야 또 進擊을繼續하야 今朝十時에는 青浦縣城을 確保하엿는데 城內에日章旗는旭光을마지며 翩翩히 날르고잇다

【上海九日發同盟】我軍은 九日一擧로 모뉴멘트路를 制壓하고 虹橋飛行場을占據、急追中인데 虹橋飛行場西側에잇는 모뉴멘트路는 去八月九日 陸戰隊 大山大尉 齋藤一等水兵이 鬼畜과가튼 保安隊에게 非命의最後를 遂한墓所로 三個月後의 今日 奇異하게도 그命日에巧妙하게 皇軍手中에占據된것이다 陸戰隊에서는 同地에記念碑를建立하고 盛大한 慰靈祭를 行하고저 着着準備가 進行하고잇다

【上海十日發同盟】海軍航空隊 今村 千田主力部隊는十日도早朝來 全力을하야 陸軍의追擊戰과 協力하야 崑山及同方面一帶의敵에 猛爆을 加하엿다 特히 崑山에잇서서는 停車中인 軍用貨車三十輛을 發見하고 이를 全部爆破燃燒시키어 敵의後方을攪亂시켯다

南市敵掃蕩在邇
支那軍保安隊와合流하야對峙
日佛紛爭釀成企圖

【上海九日發同盟】總退却의 狹岸紊亂되야 마침내 南市一角으로 逃亡한 支那軍의一部는 保安隊와 合流하야 佛國租界를連繫한 日暉路로부터 城內方濱路까지의 크리크에걸린 모든架橋를 撤去하고 我軍의追擊을阻止하야 이때문에 南市는東西로二分된 形態이다 九日夜는 이 크리크를 挾하고 彼我서로 對峙하여잇다 이部隊를指揮하는者는 上海市警察局長 蔡頓軍인것이 判明되엿다 彼等은 이地點에駐屯하야 日佛間에紛爭을 釀成시키려는 意圖인듯한바 我方은 彼等의策動에乘하는바되지안토록 愼重한態度를取하고잇는데 이殘敵掃蕩은 單純히 時間問題로觀測된다

第七十三議會 召集詔書公布

【東京電話同盟】第七十三通常議會召集詔書는 十日官報로써左와如히 公布되엿다

詔書

朕 帝國憲法第七條及 第四十一條에 依하야 今年十二月二十四日로써 帝國議會를 東京에召集함

御名御璽

昭和十二年十一月九日

各國務大臣副署

酒匂大使 信任狀捧呈

【伯林九日發同盟】新任駐獨帝國大使酒匂秀一氏는 明十日모시츠키大統領에 對하야 信任狀을 捧呈하게되엿다 그런데 大使館에서는 月末頃祝賀大레셉순을 開催한다

上海最前線에서 活躍하는 皇軍

防共協定에對한 南總督의談話

南總督은 十日 局長會議에서 日獨伊의 防共協定에 關聯하여 日本帝國의 世界的地位와 一般의覺悟에對하야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世界의 大勢는 一變한것을自覺한바이다 從來는五大國이라고하엿스나 現在는 六大國이라하여야할것이다 即 英、米、佛、蘇、日、獨、伊이다 日、獨、伊의 防共協定의 成立에依하야 「所持한國」과「所持치못한國」과 大分된것이다 即 一部의 半島人中에 舊來의 事大思想때문에 國際聯盟으로부터 脫退한 日本이 世界에서 孤立되엿든것가티 생각하는者도 잇섯든 모양이나 我國은 前述과가티 世界六大國의 新進氣銳와 協力하여 世界에 힘잇게 行軍中이다

平遙祁縣占領
敵軍西南으로敗走

【石家莊十日發同盟】正太線方面으로부터 進擊한 我森本部隊는 大谷으로부터 潰走하는敵에 猛追를加하고잇는데 九日 午後三時마침내 祁縣(太原南方二十里)를 占領하고 機關車二輛 其他多數의 武器를鹵獲하엿다

【石家莊十日發同盟】太原으로부터 潰走하는 敵을 急追하야 平遙(靈石東北方十二里)를 攻擊하는 岡崎騎兵部隊는 昨夕에 이르러 이를 完全히 占領하고 部隊長以下步武堂堂히 入城하얏다 完全히 戰意를 喪失한 敵은 西南方으로 敗走中이다

【北平十日發同盟】軍司令部發表

一、九日 午後三時〇〇部隊는 祁縣을 占領하엿다

二、岡崎部隊는 九日夕 平遙를 占領하엿다

中島部隊 黃河畔要衝爆擊

【〇〇八日發同盟】七日午後中島部隊의 〇〇機는 津浦線方面黃河河畔의 要衝濟河及 濟陽을 空襲하야 渡河中인軍船及河畔에集結하고잇든 堅固陣地를 爆擊하야 多大한 效果를 收하고歸還하엿다 [illegible] 大混亂을呈하고잇다

虹橋鎭完全占領
七寶泗洛等諸陣도確保

【虹橋飛行場에서九日佐佐木同盟特派員發】伊佐部隊는 九日午後三時虹橋飛行場南方四粁에잇는七寶鎭을 突破하고 또 破竹之勢로進擊을 繼續하야 午後六時에는 七寶鎭南方六粁滬杭甬線에沿한 華莊鎭의線까지 進出하는一方 下坂部隊는 七寶鎭泗洛鎭諸陣地를 確保하고 [illegible]

【上海九日發同盟】淺間部隊는九日午後六時 虹橋鎭을 完全히 占領하고 南方의 [illegible] 方面으로 向하야 敵을 急追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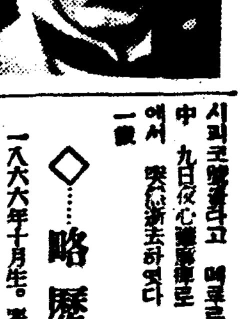
上海戰勝記事 倫敦各紙報道

【倫敦九日發同盟】上海戰勝의記事는 九日倫敦各紙에 大大的으로揭載되여 [illegible] 但 現在대로는 上海의通商은 麻痺狀態를 脫치못할것이라 [illegible] 英國朝野에 强하다 따라서이를 機會로 調停運動이 [illegible] 觀測된다 但 一部에는 英國政府로서 어떠케든지 蔣介石政權維持의 意圖가 [illegible] 調停運動이 잇다하더라도 그成功은 疑問視하는側도 만타

蘇代表急遽歸國

【브랏셀九日發同盟】九國條約會議의 蘇聯首席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은 九日夜브랏셀을出發하야 急遽莫斯科로 歸國하엿다

맥도날드前首相
心臟麻痺로逝去、



【倫敦九日發同盟】英國元首相램세·맥도날드氏는 九日夜逝去하엿다

【倫敦十日發同盟】英國元首相램세·맥도날드氏는 [illegible] 心臟麻痺로 大西洋上에서 九日夜逝去하엿다 享年七十一歲

◇略歷◇

一八六六年十月生。[illegible]

時事解說 上海의英權益

[illegible]

八面鋒

◇ 太原은完全陷落、上海의陷落도 不遠한形勢。

◇ 이때에 英米蘇가 日獨伊三國의防共結合을 꺼리여하게여 政治的으로 示威를하리라고。

◇ 明十一月十一日은 前番大戰의休戰記念日。

◇ 記念日로서 歷史上의하루는 될것이나 目下의世界政局에對해서는 平和의『종조림』에不過。

◇ 棉花는 豐年이로되 共販價格이 헐해서 農民이嘆息。

◇ 그나마 가진것을 다팔고나면 時勢가 오르지니 이니할가。

◇ 外棉輸入이 如意치못한때에 土產棉花價格을 壓迫하는 자미업는現狀。

詔書渙發記念日 南總督聲明

國民精神作興에關한 詔書渙發記念日인 今十日 南總督은 現下非常時에處하야 半島全民衆의 覺悟를 促하고 左와如히 聲明을 發表하엿다

◇聲明◇

[illegible]

昭和十二年十一月十日

朝鮮總督 南 次郎

伊政府서言明 軍事密約은업다

【羅馬九日發同盟】日獨伊三國防共協定의 背後에는 軍事密約이 숨기여잇는것이 아닌가하는臆說이 海外各地에 行하고잇슴에 對하야 伊國政府側에서는 九日 AP特派員에 對하야 協定은 [illegible]

南市를午後攻擊 居住民에避難布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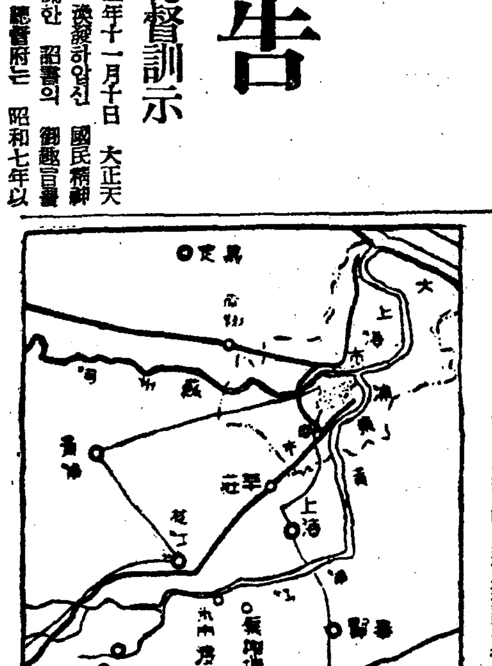
【上海十日發同盟至急報】帝國海軍은 陸軍의 南市敗殘部隊掃蕩에協力하야 十日午前以後이를 攻擊하기로되여 南市方面居住一般市民에對하야 午前中에、安全한 地點으로 避難하라는 布告를 發하엿다

南總督訓示

大正十二年十一月十日 大正天皇게압서 渙發하옵신 國民精神作興에 關한 詔書의 御趣旨를 奉體하야 總督府는 昭和七年以來 全朝鮮官民의 總意에 訴하야 그達成을 爲하야 各般施設을 講究하고 特히 十一月十日을 中心으로 또 그 國民精神作興週間을 設하고 또 그 根本趣旨를 平素日常生活의 實際에 具現시키고저 努力하여왓스는데 國體明徵이라던지 心田開發이라던지 生活改善이라던지 經濟更生이라던지 假令 그名稱은 다르다할지언정 모도 如上趣旨를 基調로하야 實行하여오던것에 不外한것인바 [illegible]

昭和十二年十一月十日

朝鮮總督 南 次郎



日獨伊三國協定에
英米蘇政治的示威를企圖
獨逸DNB通信報道

【伯林九日發同盟】DNB通信社의報道內容은如左하다 [illegible]

뭇솔리니首相 伊蘇協定破棄?

【羅馬九日發同盟】蘇聯邦은 伊 [illegible]

賦年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林繁藏
資本金參千萬圓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이잇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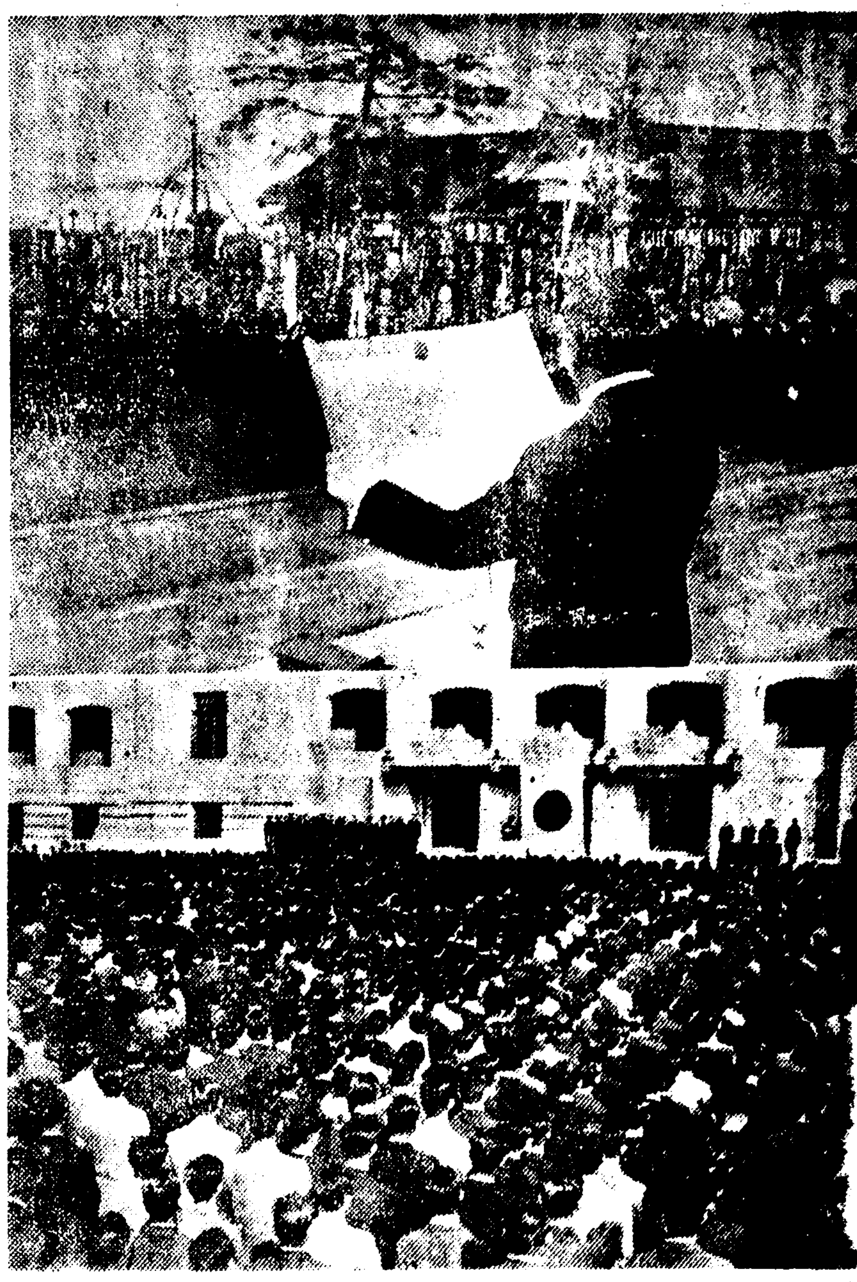
化粧水를兼한 近代的 薄化粧用 白粉 본살부터 히게하
從來의白粉과가티亞鉛華를主體로한製法과는다르게本社數代秘傳의原料로調製한것인대絕對無害無毒하다
(五十錢)(廿五錢)
有名化粧品店及藥店에잇슴
東京·新道ホーサンソ石鹼本舖

天然眞石玉眼鏡
國產의唯一은天然眞石玉
眼力의保眼은天然眞石玉
永久의不變은天然眞石玉
紫石及白石、平面、老眼、度數
各種豐富精密磨石製造發賣元
朝鮮慶北榮州
支榮堂本店磨玉部
主 朴日成
振替京城一五八五三番
(郵價表進呈)

急告!!
廣森菊松 (三十四五歲됨되는小柄의男子)
本店出張員이라稱하고朝鮮各地를도라단이면서本店製金庫販賣의手付金及其他名義를가지고金員을詐取하고잇다는바右者는本店과는絕對無關係인者이기에注意를促하기爲하야右를特히急告하나이다
詐欺犯人으로서各警察에서搜査中인者
東京市荒川區日暮里町五ノ八六九
董內金庫本店

冬メリヤス
在庫殘品廉價大賣出
東亞メリヤス製造所
大阪市西區江戶堀北通三丁目
振替大阪六、二三八〇番

謝拜席滿日連
新更容陣給女
피―커―正純한特待은獨間晝
堂殿의樂歡은間夜
スリースター
明治町一丁目·電本0865
純喫茶時間 午前十時―午後五時
純酒場時間 午前一時―翌午後五時



詔書奉讀式(上은 朝鮮神宮前에서 下는 總督府前庭에서)

市內官公署員總動員 詔書奉讀式을擧行

總督府玄關廣場에一萬餘名이參集

今日詔書渙發記念日行事

국민정신작흥주간(國民精神作興週間)제사일이요 국민정신작흥에관한 조서환발기념일(詔書渙發記念日)인 금십일은 전조선일제히 조서봉독식을중심으로 극기인고(克己忍苦)지국인식의 행사가 거행되엿다

이날아츰 남총독은 전조선이천삼백만민중에게 향하야 어성지봉대(御聖旨奉戴)을 맹서하고 지난달구일에 발포한 유고(諭告)에 따라 질실강건(質實剛健) 견인지구(堅忍持久)의 정신을기루어 생업보국에 매진하야 시란극복을 하겟다는 성명에비최여 관민일치, 내선일체의 강화를 강조하엿다

총독부에서는 우원(宇垣)시부터총히어남총독이게맛고저 총독부청원뿐만아니라 재경관공서직원전부어만여명이총독부정면현관아페 모혀 엄숙한조서봉독식을 거행하얏다 먼저일동은 국가합창중에국기를 게양하고 이세신궁(伊勢神宮)과 황거(皇居)를 요배한후 남총독은 대정십이년십일월 동대진재당시발표하야나리 영구히 국민정신 진작에 관하야 내리옵신조서를 봉독한후 계속하야 일동에게대하야 어성지(御聖旨)를 밧드러 거국일치시간극복에 매진할것을 훈시하엿다

다음 대야정무총감의 주창으로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고 남총독발성으로 천황폐하만세를 삼창한후 식을마첫다

이식의실황을 DK마이크를통하야 전조선에 중게 방송하엿는데 이시간을 리용하야 전조선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 단체 기타 농산어촌의 부락에 이르기까지 조서봉독과 총독성명훈독식을 거행한후 시국에처할 결의를 점점굳게하엿다 그리고 총독부청원일동은 이날점심을 전부 주먹밥과 김치로하야 북지와 상해에 활동하는장병들의 고초를 생각하엿다

慰問袋十五輛 輸送을開始

北支戰線의將兵에게

룡산사단사령부에서는 각지에서 드러온 북지전선장병위문품을 정리하야 일간에 화물자동차 십오량(輛)에 실어서 보내기로 되엿는데 십일부터 멸차에 실기시작하엿다 이번에 보내는물품은

▲위문대(慰問袋)십만구천삼백삼십개와▲담배 오만개와▲술 사십이두와▲식료품 일천칠백상자와▲의복(衣服) 일용품 사백삼십개이라한다 이날 삼페중장(梁瀨中將)으로이외분의 허재망영을 실지시찰하엿다(사진은위문품을싯는광경)

戰死한義勇隊員 盛大한隊葬式

天津朝鮮人會館에서擧行

칠월이십구일새벽 지난군의공격에당하여 천진동참(天津東站)에 접에 군수품운수중에 용감히 접전분투하다가 마침내 동일오전두시이십분 장렬한전사를한 천진일본의용대(日本義勇隊)중 조선인으로 조직되여잇는 특별반의반원 백중근(白中根)군의 의용대장(隊葬)은 구월오일에 집행하려다가 당시제반사정의 관계로 때문에 의용대가모두 이여출동중이엇슴으로 부득이 연기되엿섯는데 지난오일아침 백일을마지하여 천진추산가(秋山街)의 조선인회 회관에서성식(禮式)으로 성대히 거행되엿다 오후네시식장 정면에는 고인의 령위(靈位)를 안치하고 유족처리부(李孝女)씨와 유지신명이렬석한다음 사내최고지휘관 (寺內最高指揮官)의 공물 (供物)회화를 비롯하여 굴내총령사(堀內總領事) 구보전(久保田)해군무관 송택(松澤)총독부외무부장 천진일본거류민단 제국재향군인분회 북경조선인회 실천(實田)사관무 관민유지로부터 보내여진 수십개를장치하고 래빈으로서 사내최고지휘관대리로 삼전부관(森田副官)중령사 해군무관 전거장사령관 ○○부대장대리가락 천진각단체대표등 이백오십여명이 참렬한다음 의용대특별반장의 개식인사가잇고 엄숙한신사(神事)리에 각방면의조전을 피로하고 참렬사의 봉전으로 식이끗낫다 식후에실전사무관의 주최로 『천진의용대특별반용사상하는밤』을 개최하야 의용대장 반장 렵사판측조선인관계자등 다수출석하야 고인의 당시분전한는 광경이며 의용대특별반의 활동을 서로이야기하는가운데 조선인전반에관한 문제도 만히 이야기하여 극히 뜻이깁흔회한이 되엿섯다고한다

質物四十三萬點中에 廿二萬點이衣服

貸付口數는十五萬一千口를突破

全道十七個公設質屋成績

도시에서 가장간이한서민금융기관으로서 또는서민경제보호기시설로서 중요한기관이되여잇는 소화사년경성 대구(大邱)에 창설된후 어때든을리용이증가하야 중요한사회시설의 하나로서 총독부에서는 이에대하야 장하야오더판 내무국사회과조사에의한 소화십일년말현재로보면 전조선각도시에 보급되여 그수는십칠개소에달하게되엿다 그대부자금총액은 어사구만팔천오백원이데 그리용상황은 대부총구수(口數) 십오만일천구백륙십사구로 대부금액은 팔십칠만칠천칠백칠십구원오십전으로 일구평균오원칠십일전이다 이대부액을 자금전에 에비하면 삼사배나되며 소화십일년동에는 세번이상운전한사실을보여서 얼마나운용이빈번한것을여실히 말하고잇다 직업별로본 리용방면은 리용자총호수 십오만일천구백륙십사구로 상인이 사만사천일백칠십사구로봉급자가 삼만구천일백사십사구 봉급생활자가 이만이천오백칠십구, 노동자가 칠천사백삼십오구, 예작기동이 이천이백이십일구, 농업자가 이천일백륙십구, 어업자가삼백구십칠구, 기타가 삼만사천이백십칠구이다, 질물은 총점수 사십삼만천구백십칠점으로 의복류가 최고점인 이십이만오천이백팔십오점이오 그다음은 가구, 장신구등의순서이다 그리고변제방면으로보면 금액률삼십삼만사천오백팔십이원오십이전이 그리자가 사만오천사십원질이외의 대성적을보이고잇다

地方人士들의 奮起를바란다!

崇實、崇義兩校更生에對하야

平南白石內務部長의希望

[平壤] 평양숭실전문학교(崇專) 숭의여학교(崇義)등 삼교의 경영자회 선교사회에서 평양부학무과가서 경과하여 평남도학무과에 제출한폐교신청(廢校申請)서류는 그동안 도청간부들의 출장으로 그대로보류되여 잇섯스나 백석(白石)내무부장도 귀임행기때문에 정식으로 폐교신청서류에대한 결론을한모양인데 구일백석내무부장을 부장실로 차저 의향을 무릇바에 의하면 다음과가타서 결국폐교후 재학생처분문제 재산처리문제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기때문에 분명한 설명을부리어 제출하라 하여금명일중에 결국반각(返却)할 의사이어서 폐교신청 서류를중심으로 마찰은 기정사실되엿다

백서내무부장의 이야기는 세학교의 폐교신청서류에는 불비한점이만허 다시정정을 식힐의사이다 그러나 이미이문제로 밤낫서로를드라도 시원할것도 업지만 안코나 결국숭실과 숭의의현재 재단만가지고는 신설교에 대한 성산(成算)이 되지는 못하므로 평양부민(府民)들로 평남도민들로서는 물적으로 열을내여보강공작(補强工作)을해야 할것이아닌가 숭실전문교도 경성에잇는 독지가 가거액을출자했든데지방민으로서는 가만히전망이나하고 잇는것은 체면문제가아니나 하로밧비 돈잇는사람들을 올리어 세학교 갱생공작에뛰여나아와야만 비로소 세학교가 사러날것이오 뒤만빼고잇다가는 세학교의운명은 의연 암담할뿐이다 깁히 지방민의 반성을 바라는터이며 숭실과숭의는 현재대로의 잡종학교(雜種學校)로서는 부활식히지안코 반드시 고보제(高普制)의 학교로서야 비로소 개성을보게되는만큼 거대한금액이 필요한다는것을 일반은 기리 인식함이 필요하다고 열심으로 설명해주엇다

이때문에 숭실전문학교는 독지가 리종만(李鍾萬)씨를 회하고 …

약한기부만으로는 도저히 손기의개생(更生)을바랄수업서 … 지방독지가의 출현을기다리어서야 비로소 완전한개생이오를냥게 된다는 여시우려한형세에 비최여 지방독지가 유지자들은 토지(土地)로 현금(現金)으로 응분(應分)의기부를 지급하여 하루라도 세학교의안전한 개생을 도모해야될것이며 … 세학교의운명이 다하기전에 하로라도 소래치고 나아와 성의잇는 … 우리들의 자세의 공유기관이움직임을 도모해야될것을 다시금고조하는바이다

崇實校友會代表 魯氏獨斷을彈劾

代表가訪問하야强硬히詰問

魯氏에非難聲漸高

지난달 이십칠일부로 부장로회미순회실행위원장 로-드 (魯解理)씨가 동교회학교에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야 불부인외지전도국(外地傳道局)의 방침이라고하야 평양숭실세학교와 경성경신(儆新)대구 계성(啓聖)신명(信明)두학교로부터인퇴(引退)할것을 성명하엿스며 평양세학교는 이미폐교원이 제출되엿것은 루보한바이다

그러나 이성명서에대하야서는 반대의봉화(烽火)가 이러나기 시작하엿스니 대구두학교에대하야서는이미경북로회(老會)가이러나 선교회가 인퇴하면 단연코단독으로라도경영하야 폐교하는일은 절대로업다는 성명서를발표하엿스며 경신에대하야서도 『쿤즈』교장이 미국에잇는 동교설립자 『언더우-드』씨와 내외유지가 하야 맹렬한구명운동(救命運動)을 하고잇다하도 기보한바로 문제의사전과 설립의취지(趣旨)가전연다르 경신조차폐교하야 버릴야는『로-드』씨의태도에대하야 교회관계자사이에는 절차로 비난이 놉하가고잇서 문제의귀취는 또다시주목을 끌음게되엿다 숭실전문교의폐교원을 제출한데대하야 재경숭실동창회에서는 지난삼일밤에 동창회를열고 김창준(金昌俊)씨와 허봉락(許鳳洛)장로를 대표자로선정하야 … (大英聖書公會)에서 『로-드』씨를 방문하고 …

一、米國本部의 正式指令이업슴에不拘하고 平壤三校廢校願을提出한것은 무슨까닭인가

二、校名讓與、崇專校舍三年間貸借까지 拒否한것은 누구의指令이냐

三、지난여름 밋숀회總會에서合法的으로 決定된 …

交涉途中에서 金氏兩中 … 斷念케한것은 … 이양이에대하야 그는 전혀 … 에 불과하엿는데 교사대차문제에대하야는 전기대표들이 리종만(李鍾萬)씨의 숭전재건안 (崇專再建案)과도 중대한 관계가잇는것을 지적하야 신중고려를청하앗섯스므로 이문제는 호전의서명이 보인다고한다

스레이숀會서 五時間을激論

한편 구일밤연지정(蓮池町)『로-드』씨집에열린 경성스레이숀회 월례회(月例會)에서도 경신문제가 등장하엿스나 전후다섯시간이나 걸린동회의에서는 갑론을박으로 아무런 구체적결정을짓지못하고 십일밤다시 계속하야 회의를 열기로되엿는데그때에는 어떤구체적결정이 잇슬것으로 동교문제에관하는한 지금부터 그결과가 주목된다

京城老會員을招待 儆新存續運動後援을懇請

開會中의老會積極支持表明

君校長縱橫活動

경신(儆新)학교의 구명운동(救命運動)에 적극적활동하고 잇는 동교장 『쿤즈』씨는 팔일밤 태서관(太西館)에 경성로회(京城老會)장 오건영(吳建泳)씨외 회원이십여명을 초치하야 루보한바와가티 사선(死線)을 방황하는 동교의정세를 보고하고여러가지로 계속경영에 관한대책을협의한바이엇다 여기에대하야 로회측으로서도 동씨의 활동을 절대지지(支持)할것을 피력하는 동시에 선교회와로회의중으로지 또는선교회가인퇴하는때에는 로회자신이 인계경영할의무가지고 구명운동을지부터 남대문교례배당에서 로회총회를여러 회원사십여명이 출석하야 구체적대책에대하야 신중한토의를 하고잇는데 신임도계속하회중으로 그경과는 자못주목된다

淳昌에市內電話

전북순창(淳昌)은 최근전전발전하여가고잇슴으로 체신국에서는 이꼬우면소에 시내전화의 교환사무를 취급케키로하야 그공사를 착수키로하야 …

全朝鮮의直接稅 平均負擔每戶十六圓

前年度보담每戶一圓四十六錢增加

總額七千六百萬圓

조선의 직접세(법인의부담액을 제한)조정에의하면 총액 … 실천만일 … 일천백 … 조선의 … 일년도에비하면 …

古物商假裝한窃盜

… 서대문서사법계에서 … 내홍파정(紅把町)칠십일번지 려 재선(裵在善)(…)이라는 절도범인이부잡혀서 방금엄중한취조를 받고잇는데 그는 최근 버리가 업서 생활이 극도로 곤난하여 지자 추위는 닥처오고 처자를 먹여살릴길이업서 나뿐마음을품고 고물행상인(古物行商人)으로 가장하야 시내 각가정을 드나들면서 주인없는틈을타서 그집에 걸어둔 시계며 구두며 그밧게 갈진물건을 닥치는대로집어다가 팔어먹은것으로 그가저지른건만하여도 오십여건에달한다

會社倉庫서變心 黑心이르킨人夫

소가업는 조선운송회사(朝鮮運送會社)인부 용흥문(龍興文)(二七)은 지난달부터 전기회사에서 일용인부로 채용된것을기회로 당야 지난삼일 … 조선운송회사창고(漢江通)에 부내한강통(漢江通) … 거주하는 … 일화물창고에 침입하야 동창고에 … 구입하야 …

出獄翌日에 호주머니털기

夜市에出沒타被捉

형무소나오자 이틀만에 야시(夜市)에서 물건사는사람 호주머니를 털다가 장림소매치기전과이범 김범산(金範山)(…)으로 이름전인 영등포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를 나왓스나 남의호주머니를 털다 …

檢事가不服上告

平壤關檢事瀆職事件

마츰내高等法院에廻付

[平壤] 휴직검사민부호(閔孚浩)외 제인판결(判決)에대한 평양복심법원 상고 …

汽船과漁船이衝突

漁夫四名死傷

釜山港外海上에서

[釜山] 요사이 부산항내외에 선박(船舶)출입이 빈번하여 관계당국의 신경을 날카롭게할뿐아니라 일반어선(漁船)사용자들은 일대공포에 싸여잇는데도 지난칠일오후팔시경 부산항 북방부산(北防波堤)부근에서부내영선정(瀛仙町)상정(…)부산 … 소유어선 …

貨物滅失數激增 驛員에注意

… 철도국내의 각역에서 화물(貨物)의 멸실사고(滅失事故) 건수는 한해 … 증가하는 …

光州飛行場 八日에工事入札決定

[光州] 투부로 … 광주비행장(光州飛行場) … 공사비구만칠천원으로 광주대강조(光州大江組)에 낙찰되엿는바 …

私立初等校 職員卓球

十個校參加

사립초등학교장회 주최의 제삼회사립초등학교남녀교원탁구대회는 래십사일오전십시부터 사정화광교(和光校)강당에서 거행할터인데 참가교는 작년도우승교인 신명(新明)과 등교 화광、명성、광희、경명、연희、보성、명진、숭희、가명등십개교로서 남녀교원사십여명에달하야 성황을 예기하고잇다한다

스포-츠欄

運動界人事

▲金蓮淑氏(同德女高東京遠征團引率者)歸京 十日本社來訪

天氣豫報

槪況 移動性의 高氣壓은揚子江流域으로부터 朝鮮、滿洲及本州西部에 擴大되엿고 低氣壓은 東北地方의 東海上에 잇다 滿洲 朝鮮及 西日本은 晴、東北地方은 曇、東北地方及北海道南部는雨、北部는雪

豫報 今夜北東風晴다 後개다 하고 京畿全道는 …

昨日最高 一四度三 同最低 三度八 今朝最低 一度七 今日正午 十一度八

世界의자랑

非常時代는健康이第一必要

天下의補藥中 百補丸갓치 몸에利한藥이 다시업습니다 陽氣·精神·氣血胃腸等이모다 조와지고、食事가倍加됩니다

▲病弱人은疾病治療劑로
▲氣血虛弱人은補血强壯劑로
▲陽氣不足人은精力補給劑로
▲中年人은老衰防止更少年劑로
▲藥効信用天下第一!

漢方호루몬强壯劑

一、近來盛히 떠드는 호루몬劑도 漢方에서는 벌서 一千餘年前부터 使用해온것입니다
二、百補丸에 含有한 호루몬은 實로 高貴玄妙한 性質이잇습니다 百補丸은 實로 累試累驗의 名藥인故로 絶對 自信을가지고 藥効를天下에 推奬합니다
三、元氣不足、陽氣不足、胃腸衰弱、消化不良、神經衰弱、不眠症、貧血症、肺弱、疲勞、盜汗、營養障碍等에는 唯一한 多元性治療强壯劑입니다 病과虛弱으로 거정말고 至今 곳 百補丸을 服用하시요

▲補藥은漢藥이第一 (朝鮮人體質에잘맛고 効力깁고永久합니다)

高貴漢方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根本的으로 … 精强 … 無病健康長壽劑

虛弱이過度하면 百藥이無効한法

不治의難病도小小한 虛弱으로부터始作!

체증을 根治하려면 消化劑를쓰지말고 健脾强胃劑를쓰시요

百補丸의効力은 이러케굉장합니다

高貴漢方 婦人百補丸 發賣開始

生男生女·天下待望의世界的名藥

藥價 百補丸 一瓶 拾圓 婦人百補丸 一瓶 七圓

無料進呈

京城府堅志町五、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一番·三三〇番·振替五番

祝 全館完成

和

施工者

株式會社 清水組京城支店

本店 東京、

支店 名古屋、京都、大阪、福岡、臺北、大連、新京、

出張所 (金澤、神戶、廣島、高松、鳥取、小倉、長崎、熊本 鹿兒島、下關、熱海、橫濱、新潟、仙臺、函館、釜山、奉天、鞍山、營口、哈爾濱、天津)

和信百貨店增築工事拜命

煖房工事 換氣工事 給水、排水工事 冷凍、冷藏工事 ソーダファンテン工事 エレベーター工事 ボーリング工事 電氣工事

小林工業事務所

京城府本町一、アサヒビル內

小林勇二

電話本局㊁三九五九

建築概要

敷地面積 三三四、八〇坪

建坪 二八二、九一坪

總延坪 二、〇三四、四五坪 (東西兩館及附屬建物共三、〇一一、二五坪)

階數 地下一階、地上六階 屋階까지八階

軒高 地上一〇一、九尺

建築樣式 近世復興式

建物用途 地階食料品部、日用品部 地下市場、實演賣場

一階 案內係、商品券賣場、贈答品承所、튜ー리스트・뷰ー로ー、携帶品預所、洋品雜貨部、化粧品、藥品部、公衆電話、調劑室、

二階 洋品雜貨部、綢緞布木部、貴金屬美術品部、時計眼鏡部、檢眼室、計修理室時

三階 洋品雜貨部、婦人兒童服部、同假縫室、裁斷室、玩具、乘物部、手藝品、禮式部、

四階 紳士洋服部、同假縫室、裁斷室、文房具、書籍部、理髮部

五階 朝鮮物産、樂器部、寫眞機、同材料部、和信食堂部、公衆電話室

六階 家具、電氣器具部、家具모델룸 호ー르、스포ー쓰랜드

屋階 園藝、小鳥部、美粧室、着付室、寫眞室、待合室、가라리、溫室、電飾機械室、에레베ー다ー、機械室 후안룸、展望臺

資生堂

京城販賣株式會社 電話本局六九六番

一等國의一等品

サッポロビール

釀造元 朝鮮麥酒株式會社

金物商 阿部金物店

京城府太平通 電話本局一九三九番

建築設計及監督 朴吉龍

建築事務所 京城府公平町五九 電話③一五六四番

明治製菓

株式會社 京城賣店 電話②七三八八番

ブロック工事請負 青木商會

ラバリウム工事請負 東邦商會

煉瓦工事 京城煉瓦共同販賣所

鐵製建具工事 三機工業株式會社

防水工事 佐久間パブ株式會社

建具金物工事 井原商店

木製建具工事 林正

鐵骨工事 渡邊鐵工所

紡工事 渡部力造

左官工事 梶屋德一

タイル工事 加藤勝美

眞鍮金物工事 加月孫作

硝子及塗工事 辰己政吉

大工工事 山本安吉

大理石工事 前田直吉

ブロック工事 丸三商店

擬土工事 古家小之助

材木 秋田商店

スレート工事 穴原商店

鐵骨工事 森澤亭磨

ク工事 上田鐵工所

花崗石工事 安田直吉

材木 平井材木店

白馬ウヰスキー 發賣元

青木堂

京城南大門通 電話本局(四〇一番 四一一番 四二一番)

最上醬油

ヤマサ醬油 釀造場

金剛味噌製造元

京城青葉町 電話龍山一二〇八

帝國大學病院指定御用

ライオン 純ブドー酒

(白ガマ印) ホワヰトフロッグウヰスキー

極東洋酒株式會社

セーラ 萬年筆

株式會社 阪田製作所 朝鮮出張所

京城府本町三丁目 電話本局五七四三番

諸紙文具卸

大家商店

京城府南大門通 電話本局四七番 六六七六番

滿鐵撫順炭特約特賣所

株式會社 三國商會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本局(五一二六 五二四七 四六)

洋家具設計及製作 曲木家具

上木商店

京城府若草町九八 電話本局五四八四

和洋家具及指物

井村工場

京城水標町一丁目 電話本局一七六七

和洋家具及陳列ケース

丸金洋家具店

京城林町八二 電話本局六五三七

和洋家具設計及製作

新陽製作所

京城新堂町九八 電話本局三七七四

洋家具及室內裝飾

山下洋家具製作所

京城新堂町二一七 電話本局二六八九

洋家具及室內裝飾

小山商店

京城本町三ノ二二 電話本局五五一二

各種材木ベニヤ板卸小賣

中村洋行

京城黃金町五ノ二四九 電話本局五〇六

內外板硝子及陳列用金物

龜田成男

京城櫻井町一ノ八七ノ八 電話本局四〇九四

室內裝飾及織物、敷物

永本商店

京城鍾路一ノ二八 電話光化門二九五三

蘇油販賣株式會社代理店

露油商會

京城南大門通一ノ九九 電話光化門二四七二

平紐類

紅葉屋工場

京城舟橋町二六四 電話光化門一八一二

全館完成記念大賣出

今十一日부터五日間

● 百貨製造實演展 東館四五層

皇軍慰問用煙草かちごき製造實演

● 煙草展覽會 專賣局主催 東館三層

● 名士秘藏古書畫展覽會 新館가라리ー

튜ー리스트・뷰ー로ー並鐵道案內所開設

內鮮滿其他各地御旅行案內・各觀光地御案內及御相談

航空及乘車船代賣・其他旅行關係諸事業一切御取扱

◆粗品・景品附 全國著名化粧品特別宣傳賣出 新一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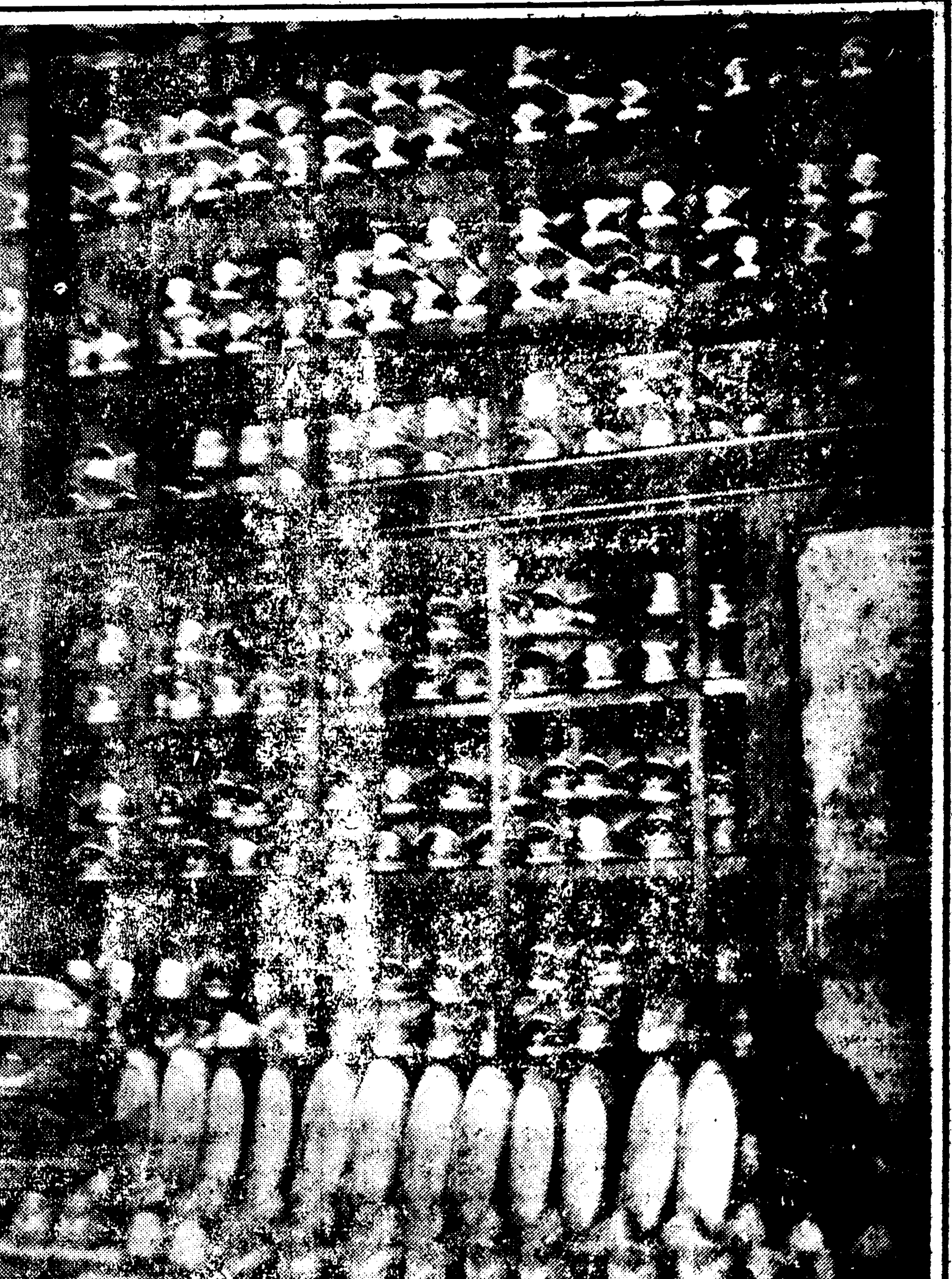
◆造花製飾・禮式部新設 新二層 ◆寫眞撮影部新設 屋階

◆스포ー쓰랜드 朝鮮最初・市民大娛樂兼運動遊園場施設

◆今冬流行王座『넥타이』콘테스트……新一階

流行界風靡『넥타이』를人氣投票하야景品進呈!

和信



家庭

고구마로 살찌면 곡선미가 생겨

영양분도 만코 변비에도 잘 듯는다 부인네는 만히 잡술일

구은고구마 철이되엿습니다 대체 부인네는 구은고구마를 질겨먹습니다

이것은 우수운이야기가튼나 실상은 아조뚜렷한묘리가잇는것입니다

고구마속에 들어잇는 성분의대부분은 함수탄소(含水炭素)즉 전분(澱粉)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구어노흐면 전분속의 아미라-제라는 효소(酵素)가 단시간만에 맥아당(麥芽糖)과 자당(蔗糖)으로 변하야서 달콤한맛이나므로 녀자들이 질겨먹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부터 위장속으로드러가면 이전분은 에너-지가 되여서 신체활동의 근원이되고 그중의 몃퍼-센트는 지방(脂肪)이됩니다

녀자는 감자나 고구마를 먹고 지방을 섭취하는데 남자는 고기등속으로부터 지방을 섭취합니다

그러므로 고기를먹고 거[illegible] 따따하아 남녀미를 나타내며 식물성인 고구마에서 섭취한 지방질은 곡선미를 나타내는녀성적입니다。

이러한묘리를알고보면 고구마는 녀자에게 업지못할 식물입니다。

다음에 위속에드러간 고구마는 창자속으로 드러갑니다

거기서는 고구마속에 드러잇는 일종의자극성분-이것은 변비되기쉬운녀자에게 변비예방의작용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가 녀자들로 하야금 구은고구마를 질겨먹도록 만드는것입니다。

이러케 조흔 고구마도 너무만히먹으면 뜻하지안흔거창한일을 저즐너 놋는수가 잇습니다 위장내의 세균이 활동하므로 고구마가 이 세균(細菌)과 마조치면 탄산까스(炭酸)와 수소(水素)가발생하야 방귀를 것잡을수업게됩니다

그리하야 여러사람아페서 못하지안코 방귀가 나와서 얼굴을 붉히는수가 잇스니 이일을 엇더케 하시렵니까

그러나 학술상으로 판단한다면 방귀는 방귀라도 담백질서울로 보러나는 방귀와는 전연성질이달너서 꾸린내음새도 다름니다 그저아모냄새가 나지안코 형포판매로폭에는 아모러해가업스니 이점은안심하야도 조흡니다

어린애들도 기를수잇는 옥토끼

한번길러보시렵니까

비상시로 인하야 감작이 토끼가 세가 나게 되니 그것은 그 껍질이 박한구(防寒具)로서 아조 실상이요 고기가 쇠고기 돼지고기의 대용품으로 역시훌륭한 까닭입니다。그래서모도들 토끼를 기른다고 야단인데 그것을 기르기란 본래 간단하야서 어린 아이들이나 로인들도 심심한데 작난삼아 할수 잇는 것입니다。

위선 토끼를 기르는데는 큰 집을 지어 노코 기르는것、괴짝가튼데 기르는것、노하기르는것등 세가지가 잇습니다。그중에서 껍질이나 고기나 모두제일 조케 되기는 괴짝가튼데서 길러 난놈입니다。그괴짝은 길이 두자나 한자여덜치 노피나 넓이 한자 다섯치쯤 되는데다가 문을 해달고 또 한편으로 석오로 한 대여섯치쯤 칸을 막아 새끼낫는방을 꾸며 줍니다

이런 괴짝을 새로맨들것도 업시 맥주상자가튼것을 이용하야도 조흡니다。만일 고만한 괴짝이라도 충충이 충계만 맨들어 놋는다면 여러마리를 함께 칠수잇습니다。그러고 밋바닥만은 대나 나무쪽으로 구녕을때고 막고 생철판을 대야 오줌똥이 아래로 빠저서 늘깨끗하게됩니다。그생철판은 다시 뒤로 홈통맨들어 놉니다。그래서 언제나 그홈으로 똥오줌을 처내게됩니다。그러면 그 똥오줌은 버릴것이 아닙니다。거름으로서 아조 훌륭한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괴짝은 어듸나 한것진데 노하두어서 조치만은 공기가 잘 통하고 비바람이 드리치지안코 습기가 업는데라야 합니다。또 개나 괭이는 아조 비가입으로 그러것들이 치변치 못하게 박비를 해 두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에 맥이는 일반 가축이 먹는것이라면 무엇이나 잘먹습니다。풀 채소 다듬고 남은것 보리、귀밀、강냉이등은 물론이요 비지、재강、계가튼것이 다 조흡니다。단지『다마네기』라든지 파가티 자극되는 것을랑 먹이지 마십시요。또 풀이 업는 겨울에는 미리 콩입사 좁입사가튼 것을 말리어두엇다가 뜨거운물에 제처서 주십시요。맥이를 주는 회수는 큰놈은하로 어섯번 새끼는 하로 사오번이 알맛습니다。분량은사십분이상 한시간까지에 다먹어 업샐만큼씩은주어야 됩니다。

그러데 토끼는 습기에 대해서 아조 저항력이 약하니까 그 괴짝미테 까는 집가튼것을 가끔 갈아 주어야하고 또 그괴짝도 습기가 안차게 늘 주의해주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벼치 잘 들어오고 여름에 덥지 안흔 남향판가튼데 갓다가 노하주는것이 제일입니다。그리고운동이 부족되면 지방과다증(脂肪過多症)에 걸려서 새끼를 잘못 낫습니다 그러니까 괴짝에서가끔가끔 꺼내노하서 운동이부족되는일은 업도록 하야주지 안해서는 안됩니다

털양말한켜레면 얼마나 오래 신을수잇슬까

지금부터날세가 치워지면 양말도 털양말을 만히신게됩니다 그러데 대체 털양말한켜레는 얼마나 신을수 잇는가를아러봅시다。

털양말에는 재제품(再製品)이잇습니다 이러하야 헌것을 재제품이안이고 새로만드러낸 조흔것으로 꼭 발에알마즈면 칠십오마일로부터 백마일의길을것고도능히감당할수잇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출근만하고 그다지밧갓출입을하지안흔 월급쟁이는 하로에 이마일삭거러단이기로하고 한달이나달반은 신을수가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조조건이 조화야하며 양말이저즌것을그냥신으면 바닥도못신고해여집니다

박갓테 나가다가도라오거던 밧곳이 날마다 양말을더러힌것을씻처버리고 푹가튼 양말을 두켜레식 준비하야 빠라말리는동안에 번가러가면서 신는독하는것이 배이상 절기신을수잇습니다。

넷길이 그리워 도라서는 발길

마른신을환영들한다 화류계아닌여염집에서도

예전에는 혼인한집 아가씨나 서방님이면 누구나신던 가죽신은 개화가되는판에 자최를 감추어버리다시피 되엿습니다。지금은 그것이 엇더케 되엿나하고 전통품을 뒤저보앗습니다

이상한일입니다 지나간 십여년동안에는 일본가야 가죽신을 찻는사람이 하나도업섯든데 작년부터는 아조 고무신팔리듯이 잘팔린다고합니다

그도처음에는 기생들이 시기시작하더니 요지음은 여염부인네가 사간다고 합니다

그도 한두켜레가 팔리는것이 아니라 한문에 한가가에서만도 [illegible]러내는 가죽신을 사십켜레인데 그것이 거지반 다팔린다고하니

지금시세로는 여자당혜는 일원오십전 일원이십전 세층류가잇는데 옛날신모양과 조금도다름이업고 다만재료만다릅니다。

남자마른신은 이원오십전인데 여기한가지 이상한것은 옛날처럼 바닥을 가죽으로한것도 잇고 그밧게 고무바닥붓친것도 잇습니다 그것은 일원오십전식이라고하로만드러다가 신식으로 꾸민것도잇습니다

그리고 쳐부가 마른신발이며 나 정진품이 못하고 약하기짝업섯습니다。진신이라고는 그림자도 차즐수 업시되엿습니다。

이신은 조선안에서만 팔리는 것이아니라 멀리 미국동지에가잇는 조선사람들로부터 주문이도러오기도하며 얼마만큼조선호텔에서 외국사람들이 만히 사간다고합니다。

금년여름에는 서전(瑞典)황태자 남내외한성의주문이 조선호텔을 통하야왓섯는데 아조흥행한 히도려서 특제품으로 보내게되여 조선신의 성명을 노피주엇다고 가갑진주인은 자랑하얏습니다。

이신은 철기가 요사히고무신보다 더 추키지못하다고는하나 효사뽑는 곳나종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아가씨 서방님들이 가죽신 소리가 다시대청과 골목모퉁이에 들녀오게되는 경향이잇스니 세사란 이다지무상한것인가봅니다。

그나마 이신도 불가를 따러서 금년봄보다도 모다 이할정도로 빗싸젓습니다。

겁나는것은 아이들의 바람

『바람』잘이르키는체질이 잇다 어머니로서 보살필일

여지껏 잘놀든애기가 별안간 새파라케질려 수족을 뒤틀며、입술이자주빗치되어 온전한사람들을 놀리게하는데 이것을소위『바람』(驚風)이라고하는데 병으로아라 누어잇는동안에 더러이러나는일이잇습니다

아이들에게는『바람』이 잘이러나는체질과 그러치안흔것이 잇서 먼저것을 경련성소질(痙攣性素質)이라고하는데 이런아이들은열병이 엇지나쁘고 비교적 신경질이어서 여간해비람이 나지안흔병에도 바람이 나는수가잇습니다 례를들면 감기에들렷다거나채햇다거나해서 삼십구도이상의고열이잇슬때 별안간이러나는수가잇습니다。이것은 몸이시원찬흔데다가 과민한신경에 큰자극을주기때문에생기는 발작인데 이런『바람』은 대개이삼분동안、기러야 사오분동안에 나어버리며 생명에 별관게되는일은 업지만 어떤『바람』은 그러치도안습니다 이를테면 역리(疫痢)나 그외의 장질환(腸疾患)으로생기는『바람』은 나쁜것이라 여간맹렬하지안습니다。이러한것은 빨리서둘지안흐면 단시간안에 생명을 빼기고마는수가잇는데 이것은십오분내지 삼십분식끔니다 이러케 시간을 오래 끌수록 위험한것이며 대단치 안는다도 작구되하고되하는것도 위험한것입니다。

그다음에 배열오로해서오는『바람』은거의다절망이며『홍역』으로오는것도역시구하기힘듭니다。

이외에 백일해로『바람』나는것도잇지만 노마열、노염、간질가튼것이잇서 이러나는 바람은 그리위험한것이 아닙니다다만 야경증(夜驚症)이라고해서 밤중에 자다가말고 벌떡이러나서、오방울헤매는것이잇는데 이것은 신경질이 고도에달한것이며 이와비정한것으로 분노경련(憤怒痙攣)이라는것이잇는데 이것은 몸시노하면 금방바람이납니다 이것은 외아들 결혼후십여년만에 처음생진아이 또는 몸시귀엽게 길른아이에게 만습니다

그런데 어린애기가『바람』이 낫슬때 어떠케해야할까 너무절절매지만말고 의사를 곳부른십시요 그리고

▼옷을흐려주십시요 특히 가슴께기를 너그럽게 옷고름이고 단추를 끌러주십시요

▼머리를 어름으로 식혀주고 수족은 더웁게해주십시요

▼관장을 해주십시요(장에서생진바람이 아닐지라도 뒤를잘보면 한결낫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의사와 의론해서괴마자기흥흥이십시요

▼피부를적당히 맛사-지해서 자극을주던지 또는찬수건 뜨거운수건을 가려가면서 대어주는것도조흡니다

▼방은되도록 어둡게해서 정신을안정하도록 해주어야합니다

무슨화장품은 무엇에쓰나

시대가 진보하면 할사록 화장품에도 여러가지 종류가새로 생겨납니다。

새로나온 화장품도 한두가지가아니여서 무엇을 어데쓰는것인지 한번알아두어야겟습니다

◇틔슈크림

이것은 영양크림입니다。주장 밤에 잘때바르고 자는가운데피부의쇠약과 주름살을 예방하며 치료하는작용을가집니다。

◇아스트린젠트로-숀

이것은 조선에서도 지금은만히쓰게되여잇습니다。이것은 수염작용(收斂作用)을 하는 화장수로서 목욕할때나 맛사-지뒤에 혈구녕이열려저잇는것을 닷치게하며 주름살을펴기도합니다。

◇윗치헤-젤

이것은 화장수의 원료입니다 주장 아스트린젠트등에 드는것인데 수염작용이강하나 조선에서는 아즉일반이쓰지안코잇습니다

◇크리싱크림

이것은 아조최근에 널리쓰여지기시작한것입니다。특히 불도크라가튼것으로할 메지기쉬운데 불도와는 먼것으로 붓처 때를 씨처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음부터 크림-싱이라고 하지안습니까 피부를 도루는때는 조선에 흔히가잇든 것으로 알어두어야합니다。

이와가터 화장품종류가 여러가지이며 크림한가지라도 여러종류가잇스니 그쓰는길을 취저쓰도록 하십시요。

우리차지

체경과 산울림

나는 누나경대에 몰래 내얼골을 비처본다。

눈물자국이 잇나업나 보느라고。

산에올라가면 소리질러본다。

내목소리가 정말 고은지 안고은지 듯느라고。

(글쓴사람 정연회)

연탄피울때 냄새나는 아류산까스

재를좀뿌리면한결나어저

연탄(煉炭)을 처음으로 불붓흘때 냄새가나지안습니까

이것은『아류산까스』라는젠나다 이것은 사람에게 해로운것은 더말할것도업거니와 첫재냄새가 흉악하야 못배길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방지하는데는 아조묘법이잇습니다

보통어느가정에서라도 부엌에 재가잇지안켓습니까

이재를가지고 연탄에 불이붓기시작할때에 연탄위에 한줌식 려두십시요

그것도 연탄구멍에뿌려서는불이꺼지기쉬우니 구멍에 뿌리지말고 구멍밧가테뿌려두도록하십시요

처음연탄에 불을붓칠때 한번뿌리고 그재가빨갓케되거든 또 한번뿌려도록 하십시요

이러케하면 웨 그냄새가업서지는지 아시겟서요?

원래 재(灰)는 습기와색소와 까스를 흡수하는성질이 잇스므로 설령만을때에 건여(乾燕)만둘때 여것을 습니다

그래서 재의 다공성(多孔性)으로 올흡미아마 재가 간들면 가늘수록 어 작용하는힘은 커지는것입니다。

그리고 재의성질이 조흘수록에 작용이도한강합니다

한가지주의할것은 어떵병으로 란의 다공성을 리용하야 까스를 흡수시키는것이며 재와 까스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것은 아니므로 재가 새빨갓케 타버리면 까스를 흡수하는힘이업서지므로 재로 재를뿌려야합니다。

그러나 불빛이때이는라고 연탄에서 나오는까스는 아직처음으로 불이붓기시작할때 제일만히나오며 온돈가 나올때에거지반 엽서지므로 처음에 뿌리제자 새빨갓케 탈지경에 어르면 냄새는 대개흡수되고 마는것입니다

中篇小說 人生特急 【32】

盧春城 作 崔根培 畫

幸福(四)

명월넘어서 시커온 점심을 먹고 두사람은 산보를나섯다。면저 변상힌산으로 기여올라갓다。버려잇군데군데 암석(岩石)이 드문드문 고 또는 소나무들이 드문드문 잇섯다。

두사람은 바위우에 나란이 걸터안저서 멀리 북한산을 바라봣다。하늘을 찌를듯한 날카로운 석봉(石峰)이 구름속에 숨어서 구름이가면 나타나고 구름이오면 숨기고——장엄과 신비의막을느리고 잇섯다。그리고 그아래 적은봉오리는 꼭 연입가티 버려잇서서 연화봉이라고 영순은 전부터 불럿다。

서울의 북쪽을 지키고잇는 이 북한산은 영순과가튼 사랑의도취자를 보거나 또는 울고 헤매는 자살자를 보거나 그외에 나라이 망하고 시대가 변하거나 내알바 아니라는듯이 다못 그 허연머리를 청공에 내여노코 먼 하늘만 바라보고잇다。

영순은

『서울이란 묘하죠。북에는 북한산이잇서서 북쪽의 찬바람을 막고잇고、남에는 한강의 줄기가 빠처서 돌연한 침입자를 막고잇소。참 경승이지오』

하고 그의독특한『경성풍경론』을 꺼내엇다。

『참 론리가 당당하군요』

『아이 또 놀리시어…』

『웨 놀리긴요。천만에…』

박사는 또 웃엇다。

『공연히 그리지마시고……。그래 선생님이 다니신중에〃구라파〃에선 어데가 풍경이제일조습듸까?』

『참 조흔데 만치요 제네바두조습니다。그명경(明鏡)가티맑고푸른 제네바호수는 보기만해두 시원하죠。그리고『알푸스』산맥을 끼고『스위스』서울『베른』으로가는 고산『런넬』지대가 더 조흔군요。어데를가든지 산어잇고 물이잇고 폭포가잇고—그야말로 산수를 겸하여 그야말로 산자수명입되다。그『알푸스』산맥중에는『영 푸라윈』라는 기봉이잇는데 처녀봉이라는 말이죠。『베른』에서보면 여름에두 힌눈이 성성하여 어떤 회장한 미인이 백포를쓰고 서잇는것갓죠。참 장관입니다。』

『아이 저런 나두 좀 가밧스면…』

『아、갑시다그려』

『그럼 언제요。꼭 가야죠!』

『아-구때나…』

『그럼 우리 결혼하고 신혼려행겸세계일주를 떠나요…』

영순은 기뻐죽겟는듯이 박사를 바라보며 그의손을 꼭 잡엇다。

『그럼 우리 가죠』

『정말…』

『그럼 정말이지…』

박사두 영순을 귀여운듯이 바라봣다。요 어여뿐토끼를 어떠케 다리고다니나하고 마음이유쾌하엿다。

영순은 상기가되여 박사를 바라보면서

『사랑은 사랑해야 하나요』

『아 사랑업는삶은 향기업는삶이죠 이성의 사랑이야말로모든우주원리와 조직의 출발입니다』

사랑예찬을 하엿다。

『그러나、사랑은 가시잇는꽃갓고 취하기쉬운 독주와 갓다고『나이듄』여사가 말하엿든데요』

『그야 론리와 도덕을 떠난 허위의사랑을 말함이겟죠』

박사는 한번 큰소리를 하엿다。

『사랑에 무삼 허위가잇서요』

『암 잇죠。거기 리해타산과책략과 유히가 석긴사랑은 참사랑이안이죠』

『그러나 참 사랑은?……』

영순은 박사를 바라봣다。

『참사랑은 타산이업고 거짓이업고 진실과 정열과 생명을다한것이라야 참 사랑이겟죠』

박사는 굿세게 대답하엿다。

『우리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가요』

영순은 이런 동단지가튼 소리를하엿다。박사는 좀 어리둥절하엿스나、

『암 참사랑이죠 우리에게 무삼거짓이 잇습니까?』

노상 큰소리를 하엿다。

『참말이죠』

영순도 동의를 표하엿다。

두사람은 또 손을잡고 맹서하듯이 힘잇게 흔들엇다。북한산에는 희구름이 백화의관으로서 그머리를 곱게 씨우고잇섯다。

結核豫防

呼吸器를 튼튼히하는

結核의病菌은 到處의空氣中에散在하고잇습니다 抵抗力이弱한處所를 틈타서 것드리며 繁殖하야 身體를侵蝕합니다

結核豫防의秘訣은 榮養을充分히取하야 體力을强壯케해서 아모리 幾萬의結核菌이附着하여도 侵蝕할餘地가업세하는것입니다만… 그中에도 呼吸器의粘膜을튼々히하야 病菌에對한防壁을强力케하는것이 根本目的입니다

어目的을達하라면은 언제나 肝油가제일먼저選擇됩니다 이肝油에는 病菌에對한粘膜의抵抗力을强化식히는 비다민A와太陽의光線을照射하는것과同一한效力을가진 비다민D가濃厚히包含되어잇는까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에使用되어오든肝油는 흉한냄새가나는데다가 分量을만히먹어야됨으로먹기가거북한까닭에 結局永續치못하고 곳中止하는것이 큰缺點이엇습니다만「一粒肝油하리바」가생긴後로 이缺陷도打破되고말엇습니다

지금까지의肝油에比하야 百倍前後나濃厚한 비다민A 또는비다민D를含有한 高級한肝油가發見된것 또는 이것을팟알만한糖衣小粒으로만들어 一粒肝油의方法이 發明되기때문에 少量의服用으로도 充足케되엇슴으로 아모리 藥을실허하시는분이라도 조곰도 厭症을늣기지안코 오래連服할수잇게되기때문입니다

呼吸器가弱하신분은 胃腸도弱한것이지만 하리바는 極히少量의服用으로充足함으로 胃腸에 고장을일으키지안코 惡臭도업슴으로 먹기에편합니다

「結核患者의게는 一日四 五十瓦의肝油를드리라」라고 力說하고잇지만 어린애에도 하리바면 一日단十粒前後의少量으로 充足합니다

普通量 幼兒……一粒 小兒……二粒 大人……四粒

百粒…二圓五十錢 五百粒…十圓五十錢 全道藥房에잇습니다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一粒肝油 ハリバ 하리바

學藝

雜記帳

朝鮮語로지는 兒名 (小字와乳名)

녯날 우리네의 祖上들께선 이름을 만히 가지는 이는 업스나 어려서는 兒名, 벼슬하는데는 字, 號, 詩文을 著作하는데는 雅號, 벼슬이 正當히 되얏다가 돌아가는 날에는 諡號等이다. 이러케만 처도 한사람의 이름이 四五個쯤은 普通인데 그것도 極度不足해서 雅號를 두個以上 占領하는 분조차 드물지 안탓 그러나 官名으로부터 諡號까지는 全部 漢字로 되고 오즉 兒名만이 朝鮮語로 된다. 兒名도 漢字로 짓는 例가 업는 것은 아니지만은 만히는 「여뿐이」「쇠돌이」等의 例와 가티 朝鮮語를 取해 쓰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區別은 어대서 由來되얏슬까. 本來 이름外에 字를 가지는것으로부터 別號나 諡號나 하는 것은 모다 漢土의 風習이라 漢文과 한께 그 風習을 輸入함에 딸아서 예초부터 漢字로 짓는 것이 怪異할것이 업지만은 어째서 俚俗된 朝鮮語로써 兒名을 맨들고 또 어째서 그러한 兒名을 必要로 하얏든지 오히려 그게 궁금한 일이다. 아니, 漢文이 輸入되기 前에도 우리네는 이름을 가젓슬것이오, 또 그 이름은 오즉 朝鮮語로 되엿슬것이 아닌가 그 當時의 말로 赫居世는 光明理世라는 意味요 朱蒙은 善射라는 意味라고 하는바 上下를 勿論코 다 이러한 意味의 이름이 잇섯을것이다. 漢文이 輸入된後에도 一種의 傳統아래 本來의 그러한 이름은 남아서 傳해왓다. 兒名이 다른게아니요 곳 그것이다. 그러타고해서 漢人에게는 兒名이 업섯스냐하면 그런것은 아니다. 史記 司馬相如傳에 相如가어려서 讀書와 擊劍을 조하함으로 그父母가 犬子라고 이름지엿다고한즉 犬子는 곳 相如의 兒名이엿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兒名을 小字乃至乳名이라불럿스니 後漢書에는 「更始然而嘆呼小字」라는 句가 잇고 宋史에는 「初生則用乳名稱謂」라는句가잇다. 歷史上 有名한 사람으로서 司馬相如와가티 小字乃至乳名이 傳하는것은 위선 記憶나는 것만 치더라도 曹操의 阿瞞과 劉裕의 寄奴等이잇다. 그러케 賤한 이름으로써 그아해의 將來를 祝福하든것은 漢土도 朝鮮이나 마찬가지엿든 모양이다. 그것은 司馬相如의 兒名이 잘證明하고 잇다고보인다. (銀山)

現代文學精神의模索

―그意慾의레아리즘的燃燒論― (一)

安含光

虛誕한 現今朝鮮文壇의 大勢에對하야 吾人은 그를 故鄕을 喪失한 집씨―의行脚에 比喩해 보고싶은 衝激을늣긴다. 우리의 文壇이 恰似히 이데오르기―的 룸펜의集合所와가튼 印象을주어온것은 벌서以前부터의일이지만은 近間에와서는 그어느때보다도 더尤甚하게 더旺盛하게 오직 故鄕을상실한 藝術에依하여 輻輳되여잇슬따름이기때문이다.

大體 現代의藝術이 安住할故鄕은 어듸냐?

오늘의危機는 이러한切迫된부르지즘을 藝術家압헤捧呈햇다. 個中에도 社會進化의 歷史的認識에對한 透徹한準備를갓고잇지못한 小市民作家들은 이러한切迫된課題압헤 보다深刻히 混亂되고 懷疑하든끄테 『파랑새』는 求하여어더질수잇지도 안흔지라 오르지 生活의消極에對한 皮相的인交涉과 感覺的愉悅에빠저버리고마럿다.

이리하야 故鄕을喪失한藝術은 아모리呼訴할內容도 갈히도가지지못한채 皮相과 輕薄과 感覺的愉悅로서 그刹那刹那를 糊塗해버린것이니 社會的紐帶關係에서의 藝術의 本質的使命이라는것! 그는 오히려 藝術의冒瀆이라는 이름밋에 푸대접을밧엇다.

생각컨댄 現代에잇서 故鄕을 喪失한것은 非單 藝術만이아니다 둘러 人間이 그러하고 知性이그러하고 또 道德이그러하다.

過渡期的特徵은 辯如라할가? 左右間 그들이 安住할바자리를 엇지못한채 迷徨되고잇는것만은 어쩔수업는事實이니 人類가 自己生活을 統御할文壇를 이저버린채 하나의鄕愁를안고 憂鬱한 放浪의길을 떠난지도 임이 오래다. 여기에는 오즉 無政府的인興奮과 神經質的인冷笑와 또 虛無的인血笑가 偶然의 蒼白한 壞滅狀態를 이루고잇다

人類의 本質的使命에對한 執拗한探求! 이는 뭇슨 恰似치 못한者의 頑固한 固執이나는듯이 人生의 十字路를默然히 凝視하든 蒼白한 情熱은 손우슴을 던지고 다라나버린다. 어떤者는 表情의 씨―니시트를갓고 어떤者는 卑怯한 自由性과 二元論의 老獪한 術策을갓고――

果然 이래서 오른냐? 이곳에 잇서混亂에 對한 整理와後退에 對한 進就의 意慾은 時代의 觀念을하야를 안(抱)은채多角的面貌로서 登場하지 안흘수업다.

喪失한 故鄕의 奪還! 이것이 現代에잇서서 緊急한 社會的課題로되엿스며 이緊急한 社會的課題아페 知性과 道德이몸부림치고 人間이 그本來의權威를 위하여 主張하엿스니 曰휴매니즘, 曰 모랄, 曰 行動主義…等 實로 多彩한面貌를 무露햇다.

(論述의 便宜上 모랄、行動主義、휴마니즘을 난호아서이야기하겟스나 그것들은 結局휴마니즘의 分派이고 또要素일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리하야 휴마니즘은 人間의 再發見과 知性의 擁護를 核心的內容으로서 主張햇든것이니 卽 混亂된 汚濁의 구렁에서 뛰처나와 人間自身의 權威를 再認識하고、時代를 超克할 人間的自覺을 渴求해 마지안는다. 時代를 超克하는바 人間的自覺! 그는 다름아닌『知性의自由』의 信念일것이며 이『知性의自由』의 信念이야말로 現實에對한 抗拒의 意慾이기도하다 이곳에 우리는 知性의擁護와 人間의 再發見을 못토로 휴매니즘이 登場되엿다는데에 對해서 爲先 充分한理由를 發見한다.

그리고 모랄問題만 가지고이야기할지라도 一段 民衆이 今日과가튼 攻勢가온데서 暗中摸索하며 苦惱하며 懷疑하고 또 어떤意味에서는 苛責하는곳에、모랄을 要求하는 時代的反映으로서、現代藝術에도 모랄이 要求되여지면서 잇다는것도 或種의 一面만을 是認하지 안흘수업는問題이며 또 머래냥데스로부러 發足한 行動主義만 가지고 이야기할지라도、이곳에서數多한 言辭를 虛俗할것업시 그것이 懷疑的姑息이라든가 浪漫的諦觀에 拒抗하야 하나의 能動精神을 樹立하려는 一點에만 着眼한다할지라도 우리는 決코그에對하야 神經質的편협을 表示할心要는업다.

「知性」의解明

그歷史性과및自然性 ②

徐寅植

自然知性은 擴張의立場에잇는 知性이다만 그는 自然으로서의 로고스만가지고 歷史로서의파토스는 가지지못한것이다 따라서 그는 希臘사람의 일은바 實料업는 形相과가티 一面的인 一般性뿐가지지못한것이다。一般性은 一面性을 克服하기爲하여서는特殊性을 媒介로하고 個別化하지 안으면 안된다。歷史知性은 綜合의 立場에 나간知性으로 그는 一般性을 個別性에 차고잇는 일은바 具體的普遍이다。論理學的 用語를 借用한다면 自然知性은 述語的의것이나 歷史知性은 主語的의것이다。述語가 述語되기爲하여서는 그는 곳까지 一般的의것이되지안으면 안될것이다。그러나 그는 主語와가티 具體的一般者는될수업다。

知性의 特性이 普遍性一般性에잇슴은 두말할것도업다。우리는 南歐諸民族은 理性的이고北歐諸民族은 意志的이라는 흔히말하지만 知性에 伊太利사람의것과 獨逸사람의것이 各各달는다고는 말 하지 안는다。아니 意志나感情에 잇서서도 칸트의實踐知性파가튼 形式으로서의意志나 코―헨의 純粹感情과가튼 根源으로서의感情은 벌서 知性에制限된 普遍一般性을 가진것이다 그러키에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善한意志에는 希臘사람들과 함께 感服하는것이며 베토벤의 偉大한音樂에는 獨逸사람들과함께感服하는것이아닌가

그러나 知性은 自然으로서의 普遍性만가지는것이아니고 歷史로서의 限定性까지도 갓고잇는다 上 칸트의理性一般이나 릭케르트의 判斷主觀파가튼 意識一般의 知性은 人間의認識主觀에 잇서 『잇서야할規範』은 될지정『잇는』現實的은아니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우리의事物認識에잇서서 쫏처야할規準은되나 또한 完全히到達할수도업는 한낫의 極限槪念에不過하다 場所와 時間에 사는人間이 歷史人間인거와가티 各時代의 人間認識의 能力파方式에는 相對的限界와 性格的差異가잇다 그럼으로 原始時代의 神話的知性파現代의 科學的知性 中世의스콜라知性과近代의 實證知性은 各各構造와 形態를달리한다。

知性은 이와가티 對立된두낫의契機――一般性과 歷史性을內包하고잇다。知性은 知性으로서의同一性을 갓기爲하야서는 一般性普遍性을가지지 안흐면안되고 知性으로서의限定性을갓기爲하여서는 歷史性 特殊性을 가지지안으면안된다。一般性과歷史性은 知性의構造에잇서서 對立된 契機로서 一般性은 知性의肯定的契機를 일우며 歷史性은 否定的契機를 일운다。이두낫의契機를 內包하엿기때문에 知性은 知性으로서 發展하는것이니 知性은 一般性으로서 限定되기爲하여서는 一般性을否定하지안흘수업스며 歷史性으로서 同一하기爲하야서는 그否定을 다시 否定하지안흘수업다。이리하야 한낫의統一된知性이出現하나 그는 다시 否定을 媒介로 自己를 限定하지안흘수업슴으로 知性의展開運動은 끗칠수업는것이다。그리고 知性의發展은 곳 限定을 意味하는것임으로 知性은 發展하면 할사록 內容이 豐富하여진다。가장普遍的인知性은 가장具體的인 知性이다。普遍으로 나가는것은 具體로 드러가는것이다。前進은 同時에 後退이다。

知性이란 原來이와가티 對立의克服과 再生産의 過程을거처 歷史的으로 發展하는것이다。知性이單純한 自然知性으로서 肯定의立場에 머물너잇는限 그는 『칸트』의先驗知性파가티 抽象的인自然人性에만 內在할수잇는것이다。知性이 自然知性으로서 立場을 死守하는限 그는『칸트』의知性과가티 二律背反의 矛盾에 逢着하는것은『헤―겔』의指摘한바이다 이러한矛盾은 오직 知性의 歷史的展開에서만 解決될수잇는것이다。形式論理가갓고잇는絶對와相對 無限과有限의 背反은 辯證論理에서만 止揚될수잇다。우리는『칸트』의自然知性이『헤―겔』에일으러 歷史知性으로 止揚되엿든 歷史的事實을 知性의論理的構造의 必然性에서도 容易히 追跡할수잇다。

그러나 知性은 헤―겔의 이데―와가티 제절로 發展하는것이아니고 人間의實踐的行動을媒介하야 發展하는것이다。知性의運動에는 論理的契機와함께 實踐的契機가잇다。

知性의 肯定的契機와 否定的契機는 實踐을媒介하여서만 統一되는것이다。原來 源泉을 따지고보면 知性의運動은 知性의 內面的論理的對立에서 由來하는것이아니고 知性과存在와의 對立에서 由來한것이다。普遍的矛盾은 곳 同一知性의 內面的對立에 不過하다。

知性에 根本的으로 對立하는것은 知性이아니고存在다。그러므로 知性은 다른知性과의對立에서보다 存在와의對立에서 自己를否定한것이다。다시말하면 그는存在에서 限定된것으로서 다시知性에서 限定되는것이다。知性은 人間的知性이기前에 먼저 對象的知性이다。

따라서 知性의內面的對立 否定的契機와 肯定的契機의對立은 存在의 內面的對立에서 由來한것이다。그럼으로 知性이 한낫의 知性에서 다른知性으로 展開하기爲하여서는 實踐을기다릴것은 明白한일이다。論理的對立은 同一知性의 內面的對立에不過한만큼 單純한論理的對立에依하여서는 知性은 異質的인다른知性으로 移行할수업는것이다。다시말하면 知性의運動은 論理的契機와 實踐的契機와의 統一에서 보아야한다。

文學의再認識

―創作方法論의現實的局面― (三)

尹圭涉

林和氏가 이가튼 觀照主義를 『作家들의 새現實에對한 對應態度의反映이라』고 注意를喚起식힌것은 正當하다。事實 그것은 『實踐으로부터 遊離된反映』이며 明白히 우리가 克服하지 안흐면 아니될 重大한 에듸미의하나이다。우리는 그의克服을 爲하야는 어떠한努力도 辭讓치 마러야할것이다。

그러나 氏에잇서서 쏘시알리즘的리얼리즘이 跛行的리얼리즘化한 本質的契機가 새現實(外的壓力)에對한 作家들의 對應態度에잇다는것을 十分認識하엿다면 무엇때문에 엥겔스가 마―가렛트·허―크네스의게 보낸 書簡文으로因하야 暫定을얻엇다는矢言을하엿슬가 氏는 世界觀과方法論을 分離하야 作家의世界觀과도矛盾하면서 偉力을 發揮하는『레알리슴』만을미덧기에 오늘의作家들이 日常的身邊의鎖末事만을 描寫하고잇다고 생각함으로서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氏가 말한『새現實』과『外的壓力』때문에 作家의世界觀이 萎縮되고 레알리즘이 形骸化하엿다고 力說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跛行的 리얼리즘觀照主義는 白鐵氏나 朴英熙氏도 一個의 作家論을 爲하여 崔載瑞氏도 『안즌뱅이文學』이라고 嘲笑를하여온것이 아닌가 우리의論點가 그들과 區別되는點은 이러니 저러니하는 單純한解釋에잇는것이 아니라 한거름나가서그것을 어떠케 變革시키고 어떠케克服시킬가에 잇슬것이다。

林和氏는 그것이 實踐으로부터의 遊離요 意識的인 逃避라고하야『우리들의 理論的事業은 모름직이 非實踐主義를 淸算하지안으면 아니되며 指導的批評 文學史 文藝學의再建에잇다』고 하엿다。아무리 하나의 提案에 그친다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너무도 槪念的이요 枝葉的이라는 誹謗을 免할수 업슬것이다。그러나 나는 具體的討議를 要求한다고하야 決코 技術的問題를云謂하고저하는것은 아니다。나의 論點은 차라리 다른곳에 잇다고할것이다。卽 林和氏는 처음부러 우리文壇을 橫行하고잇는 跛行的 리얼리즘이 外的條件에 由因하엿다는것을 認定하면서도 그것을 떠이나 看過하야 마치 一二作家의 不當 不實에 잇는것가티 取扱하는感을 준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아무리 外的條件이 거세다하여도『高次의 리얼리즘』에로 進出할수잇는데 作家들이 意識的으로 逃避함으로써 그러케되엿다고 생각한것이다。

이가튼 高調에서 激動만하려는 氏의孤高主義는 일즉 휴맵니즘論議에서도 指摘한바이지만 明白히 今番의리얼리즘論議에 잇서서도 窮狹이 되여잇다고할것이다。그럼으로 氏의눈은 어느때나 作家의 뒤꼬리만 매달리여 『具體的인歷史』라든가『現實的人生活』이라는 眞正한世界에서는 完全히 外面을 하게되엿다。그리하야 四五年에 잇서서도 쏘시알리슴的리알리즘은『낡은歐民에對한 自己批判의 結論으로서 象하야는 새로운 出發의 方向으로서 우리들의 一致된理想의 反映』이며 오늘의 社會的現實에잇서서도 亦是『文學活動의統一的標幟』로서 그것은 아모리 吟味도 要치안는『定理』가되고말엇다。

이것은 氏뿐만아니라 金龍濟氏에잇서서는 一層尤甚한것이잇다。金氏는 오늘의客觀的現實과 그에影響된 文學者의 生活的現實을 眼中에 두지안코잇는 지엽는지 如何히 리얼리즘論議에잇서『突破的』態度에 스사로 陶醉되여 作家에게『主觀的自覺』만이 缺如되엿다고 외치고잇다 卽『오늘날 리얼리즘의 發展的水準이 到達하여야할 現實的要求에 뒤처서 現在點에 低迷沈滯하고잇는 直接的原因과 責任은 外部的壓迫보다도 이땅의文學的指導級에잇는 리얼리즘論議의 沒自覺性에잇다』는것이다。더옥이 그具體的課題로서 提案된『文學의大衆化』云云은 氏가 리알리즘作品으로 自認한 李箕永氏의『麥秋』와하께 氏의머리속에그린 리알리즘이란것이 얼마나 平板化한것인가를 窺知케하는 好個의標本이라고할것이다

都大體 文學이 科學的世界觀과 公然히 結付되여 市民的리얼리즘의限界를 쩨틀로 階級的情熱을 리얼리즘方法으로 解決한든 그때나 世界觀이 뿌리채 動搖되고 階級的情熱이 消盡되어 各自의內省에 沈潛된 지금이나 一樣으로『리얼리즘』을 관의 延長이아닐것인가!

勿論 林和氏는 八峰對朴英熙의 論爭期로부터 今日에 이르기까지 高次의 리얼리즘에로의 昇華過程을 말하얏스며 金龍濟氏 또한 題目부터『發展的』리얼리즘이라고하야 同一한 리얼리즘의 反映이아니라는것을 暗示하고잇스나 實際의 內容에잇서서는 리얼리즘의 深入한 이러한痕跡도업다。依然히 初步的創作發展의 公式羅列의程度에 그치며 오늘의 社會的現實―生活的現實의 創作方法論과 交涉되는 現實的局面에서 疎外되여 單上에서만 積極性이니 飛躍이니 各自의『세리푸』를 던지고잇다는것은 氏들自身이 너무도 기교 主觀的洞窟에 파무처잇다고 할것이다。

愁誰語 ④

지용

하로가리웁 되는 려ㅅ밧이랑에 손이 꼽게 돌아가 엿다。갈고 흙덩이 고르고 잔돌줏고 한것이나 풀포기 한입 거천것 업는것이나 강물을 거든히 돌리 천것이라 이랑에 흙에 따뿍 따뿍 놓도든것에 때돈제가 배저려하고 얼손씨 메끈끈 사람의 한얼에루꾸나 하엿다。논밧일은 못해봣음망 꼴하고 못하잣에야 모둘저 엇스랴。잔손질을 빼서 뿌리엿다거든

일고 김장 무배추로는 엉청 늣고 가랑파씨를 뿌리랑 십다。참새떼가 까마케 날러와 안기에 황겁히 활개를 치며『우여어!』소리를 질럿더니 그만 훵잉! 훵잉! 소리를 대며 쫏기에갓다。

그도 그럴것뿐이요 새도 눈치군치를 보고 오는것인지 어는사품에 또 날러와 짓바수는것이다。방아깨비 풀과리ㅅ군이 아닌바에야 한두번에재 한나절 위한하고 새를 보아줄수도 업는일이다。

이번에는 난데업는 비둘기떼가 한 오십마리 날러오더니 이것은 네부카드네살의 군대쪽이나 되는구나。

이러케 한바탕 처르고 나도 남을것이 잇는것인가。하도 딱하기에 방임자인듯한이를 멈훠 불러 물어 보앗다。

『싸갑씨 뿌려둔것은 비둘기한대주라고 한게요?』

『그 어떠컵니까。억울쏘고 쫏차도 하는수 업스닌』

『이근처 웬 비둘기가 그리만소?』

『원한경 원목사ㅅ집 비둘긴데 하도 파먹기에 한번은 가서 사설을 햇더니 자기네도 할수업다는걸요。멧마리 사랑할으로 길른것이 남의집 배를기까지 달고 불어와 복새를 노니 거두어 먹이지도 안는바에야 우정 쫏차낼수도업다는겝니다。』

『비둘기도 양옥집 그들이 조흔게자요』

『총으로 쏘던지 잡어속이던지 맘대로 하라곤 하나 할수잇는 일입니까。내버려두지요』

농사꾼이란 한한하게 아닌가、대한테 먹히고 벌래도 한목 태우고 홍수 旱災 한겨고 도지되고 짓수 치르고비둘기한테 짓바시우고그래도 남는다는것은 그래도 농사꾼 파게 업다는것인가。

빼넘자는 남의일 어야기 하듯하고 강후에 열두어살쯤된 남매가이둣한 아이들 둘이 계어진 냄비쪽 생철통을 들고나와 박머리에 전을 겨는것이다

이건 꼭하는것인지 노래부르는것인지 야릇하게도 스러운푸럼이나 哀願이 아닌가。남의생에게도 哀願은 通한다 然然히 날러가는것이로구나。남거생도 워낙 억세고 보면 사람도 쉬울 치며 우는수바게 업스렷다。

농가아이들을 괴이성스럽게들수가 업다。

첫재 그들은 사나이니까 머리를 까겻고 계집아이니까 머리가 잇슬뿐이요 몸에 걸친것이 그제 구별과 애칭이 부를수는잇다。그들의 처림와 차장이란 이에 그치고만다。

허수아비는 이보다 더 허름한 옷을 입엇다。그래서 날짐생에서 쉬어 스지안는다

그들은 처녀서 복스런 웃음을 웃을줄 몰으고 우슴이 절로 어여뻐지는 웃의 웃직 때이고 펴고하는 볼이 업다

그들은 씨씨한 물ㅅ기와 어굼거리는 피ㅅ빗이 업고 흙빗파 함게 검고 푸르다

딸과 다리는 파리하고 으실뿐이다

그들은 웃움이 업서도 얄지안는다

눈도 아모 날래고 사나운 열스기가 업다 슬프지도 아니한 눈이다

줄처럼 울지도 아니한다

—노래와 춤은 커니와

그들은 여 개나하고 꾀죄죄한 自然에 나며서 부러 겨러고 慢怛이 의어왓다

주리고 헐벗고 孤獨하여서 사람이란 敎訓 認識이 必要한것이어겟스나 그들은 새삼스럽게 勞力을 드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들은 괴롭지도 아니하다

그들은 세상에도 슬프게 생긴 무덤과 이웃하야 산다

그들은 흙과 돌로 얽고 다시 흙으로 칠한 바안에서 흙냄새가 마러지지 아니한다

그들은 어버이와 숨소리와 잠고대를 하며 잔다

그들의 어머니는 영절날이면 회ㅅ배가 아프다

그들의 아버지는 영절날에 취하고 온다

南部伊太利보담 푸르고 곱다는 하늘도 어쩐지 永遠히 만데로만 향하야 한눈 파는듯하야 구름도 꽃도 아모 裝飾이 될수업다

詩情畵意 (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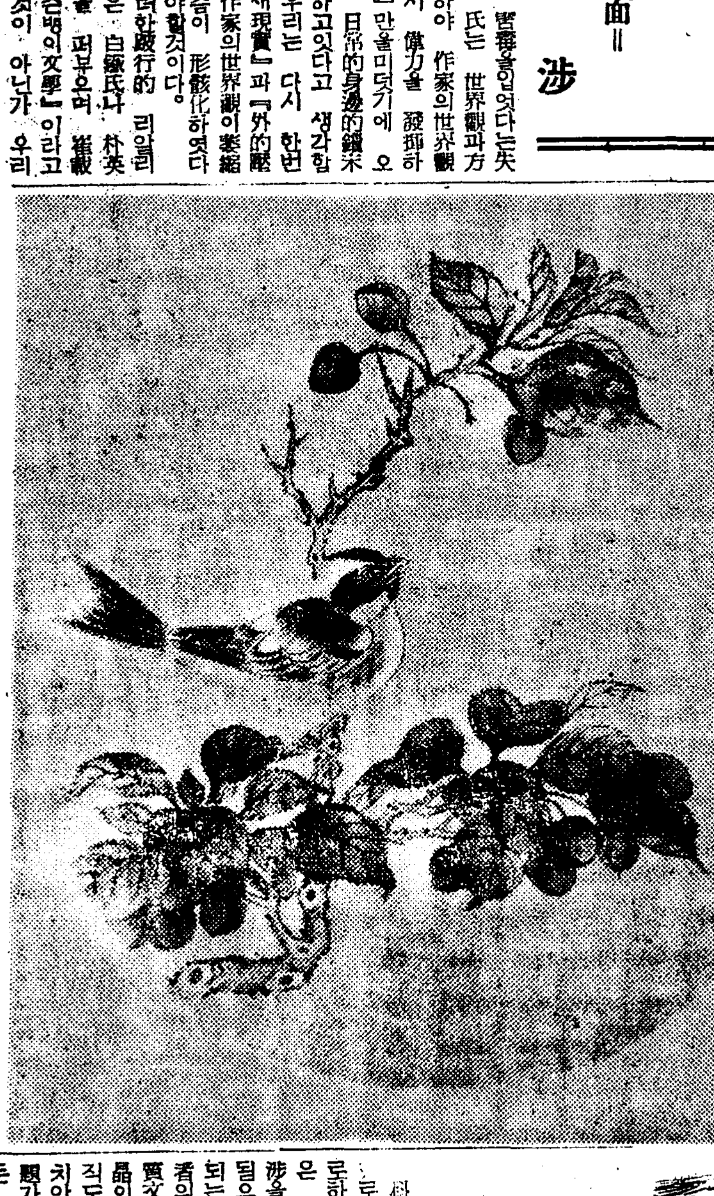
李 澤…畵

朴基觀…詩

갈장새 적다하고 大鵬아 웃지마라

九萬里 長天에 너도날고 저도난다

두어라 一般飛鳥ㅣ니 제오내오 다르랴



科學

人類가사는地球의 그生成과壽命 (一)

兪莞昌

科學의發達은 먼저事象의 觀察으로부터하야 理法의 掌握을爲主로하는것이다。一步進하야 이것은 人類大衆과 直接間接의 交涉을갓게되며 一般生活에 利用됨으로써 科學者의 使命은 成立되는것이다 數世紀에亘한 科學者의 功績은 實로 크다 今日의物質文明의精華는 그들의血汗의結晶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나 아직도 科學者의 眼前에는 解決치안흐면아닐 여러가지의 難問題가 橫在하여잇는것이다 卽모든 이 自然界의 巧妙精密極致한 複雜多端한 現象을 闡明하기에는 우리人間의 觀察力은 너무나 無力하다는말이다 그럼으로 筆者가 여기에 論及하려는 地球의 壽命도 그 結論을 맷지못할것은 勿論이요 數世紀에 亘하야 이 問題에 對해서 여러科學者들이 如何한見解를 가지고잇는가를紹介함에 不過한것이다

◇天地開闢

天地開闢 地球創生에對한 假說은 벌서부터 多方面으로 論述되여왓섯스나 近年에와서 가장 만히 引用되는것은『칸트』Kant 와『라프라쓰』Laplace 兩氏의 學說일것이다 그러나 이 兩氏의 學說에 여러가지의 矛盾된 不合理한點이 잇서 돌이어 一般에 또다시 新學說이 說明되여나오게되엿스며 이에 名學者들의 假說을 略述하면 다음과如한것이다

◇星雲假說

一七五五年 저 有名한獨逸哲學者『칸트』氏는 太陽系成立에 對하야 다음과如한 學說을主唱하엿다 太初世界에는 各種의相異한 瓦斯體 卽星雲이잇서서이 各異質의 元素는 强한引力이잇는便으로 相引集合되여 漸次過程에 잇는物質은 凝集하야中央에 大塊를 生成하엿스리라고 推測할것이니 이것이 卽太陽일것이다 그러나 이 太瓦斯體周圍에는 여기저기에 局部的으로凝集된 物體가 生成되여서 太陽系를 成立한것이다 라고『칸트』氏는主唱하엿다

佛國의 數學者며 天文學者인 저名한 大學者인『라프라쓰』(Laplace)氏는 一七九六年太陽系成立에 對하야 다음과如한學說을發表하엿다 太古世界에는 廣大한 容積을占有한 高熱의瓦斯體 卽星雲이 球狀으로 緩緩無比하게 迴轉하야―現在의 太陽으로부터 海王星附近까지―徐徐히 回轉하엿다고 想像되는데 이瓦斯體는 漸次로 冷却收縮하게되여 回轉速度가 漸次增加하게되고 赤道附近에서는 遠心力은 引力보다도 强大케되여 環狀의 物質이 中央部로부터 分離되는同時에 … 그러하야 이環狀의 部分에 … 中心部로부터 溫暖케되여 內部의 變化는 … 것이니 … 加함을뿐아니라 도다시 固狀을 形成함이니 이 團狀이 第二의 惑星이 形成된것이다 이와如히 … 어서 結局 水星 金星 地球 火星 木星 土星 天王星 海王星等을 主星로한 太陽系가 創造되엿다는것이다

漢文易解의方法 (九)

◇…各種의符號를使用하자

李圭鳳

五、는 (1)爲傳」、(이면)。學死ー無恨「(이로다)(지금죽어도 한번보앗스면 비록죽어도恨이 업스리로다「三ノ一〇」의 副詞語이 重複된것과 (2)富而可求也(나라)。雖執鞭之士、吾亦爲之(어니와)(富이고저 可히求할진단 비록 채쭉을잡는人士라도 내또한 하겟거니와「論五ノ一九」의 副詞가아닌것이 重複된것(만일 中間의가 여러句면 上項의中下標쓰는 境遇대로할것)。

四、形容標는 쓰는境遇가上記、吐漢文파가트되 다만 한句獨立에 吐가빠짐으로 本標를쓰게되며、또는다른데쓴本標를 빼기도하나니、

(一)、(1)酒溫(의)、座右戒。曰…(酒溫의 座右戒에갈오대…「一ノ三一」)의 「의」吐代로本標를 쓴것。

(二)、(1)皆出於文氏(의) 族黨。(의)(다文氏族黨의 潛心하야 硏究함에나와더라「三ノ一七」의「의」吐가 빠짐으로文氏下의 本標를빼것。

五、上動標는 쓰는境遇가上記、吐漢文파가트되 다만한句讀안에 吐가 빠짐으로 本下標를 쓸때도잇스며、그第五項인 他動의 目的格사이에잇는 「을 를」吐가빠짐으로 下動標를쓸때도잇나니、

(一)、(1)自此(로)、遵海(하야)、行(하야)(이로부터 바다를 따러서가서「一ノ三八」)。

(二)、(1)出言(을)、必(하)、顧行。(하며)(말내기를 반드시 行實을도라보며「二ノ一」)。

六、前置標는 쓰는境遇가上記、吐漢文파가트되 다만 한句讀안에 吐가빠짐으로 本下標를쓸때가잇스니、

七、自動標는 쓰는境遇가上記、吐漢文파가트되 다만吐가빠짐잇서吐가업슴으로 그自動詞를 알기어려운때와、因果인 自動詞잇서吐가빠짐으로 그因果된「之字」잇(前置意味가 잇거나思慮되거다시로된데만 더쓸지며 그外에名詞字나 혹 複字잇는 境遇를따러 增減할수잇슴)에 本上標를 더쓰게되나니

(一)、(1)濕說之(하고) 利。(一)。(하고)(濕說하는利가되곤「一ノ三三」)

(二)、(1)君葉。交錯。(이)(하야) 可愛。(君葉이 交錯하야 可히 사랑할러라「二ノ一五」)(여기에『可字』잇는上動標를 쓸수잇슴)

(三)、(1)此之(ㄱ)。(此하오면「一ノ三五」(2)劉公(이) 初逢易之ㄱ。(리니)(劉公이 처음에셤게너기더니「一ノ二〇」)。

八、括弧標는 쓰는境遇가다上記 吐漢文파가트되、다만吐가빠짐으로 複線、單線의 括弧를 쓸때도잇스며、또는 單線括弧의 下標를用을 表出케되나니、

(一)、(1)『後(에)有人作詩(云)』『人恥呼昇書。……』(이나)(고하더라) 安 …

(二)、(1)吾聞『華兩頭蛇』(ㄴ)者는 …

살은實例

갑싸고곳난는것이 저를살려주엇습니다

(咸南) 朴成龍

…早老하야 생활의 곤난과쟈우니 나의半生은 평단하고 재미란도모지 맛보지 옛엇입니다 이러한 나에게 림질에 걸녀다는것은 참으로 청천벽력이엿습니다 집안의 형편도 형편이러니와 나의 신세로서 이병에걸닌것은 후회하나 것잡을수업는 결론마즐에 빠진것입니다 病院에는갈수업는형편이라 前에듯지안는 신문잡지에서 良藥을 차저내기로결심하엿습니다 산산지를 一一히 읽어보앗스나 모다그럴듯하야甲乙을 가릴수업스니 길동한 병이라입니다 적은돈으로 엇더케하면根治를 바랄수잇스랴! 藥고르기에 바황하다가 선뜻 눈에뜨인것이 부라오銀겐고ー루입니다 說明文을 읽어내려가는中에 어느듯 나의病이나은 感이 생겻습니다 그만치 친절하야 알기쉽게 합문으로나 쉽지로나 청당하는글이나에게 확신을만들어주엇습니다

最初로처음하고 겐고ー루一號와二號中병을주문햇습니다 한두번치료에 숨엇든고롬이 쏘다저 나오고 오줌도 차차맑어지며고통도업서서 다시금勇氣를채로되게도엇습니다 이러케손쉽게 집에서 곳치게된것도 오로지 나의몸의 주도하야 형편에속지안코 단번에겐고ー루를 꼭나너든데이며 귀사의친절하신 지도에의한것이라고 밋습니다

斷念하엿든 慢性淋疾을곳치고서

(大邱) 金星茂

(前略) 무처대고 淋疾이 만나지안는 病이라고 생각하야 임시적치료만으로 그러저럭 지난지 數年이됨니다 그러나 근래에올어서 친구들의 모임좌석에서 흔히 근치된엿다는 말이나오게되니 남의말은 신용안하는 내나새이지만 다시금 活路를엇고자 친구를차저무른니 그것이 곳 貴社의 『겐고ー루』이엿습니다 반신반의로 치료를 시작햇습니다 사용함에도 조금도 불쾌 불편을 모르겟고 아조순순이 치료를 계속中 전에소비된 몟十분지一의 金額밧게 안엇는데 病은 거진다낫는듯하므로 깃븜에넘처 貴社에 感謝의붓을 려고後의 病勢를報하야 지도를바더가면서 一心치료에힘쓰습니다。이생四十이각가운이몸에 새힘과 깃븜을 엇는날도 얼마남지안엇겟지요。(後略)

발명창제 發明創製

원동경길원유곽 元東京吉原遊廓

길원병원장 吉原病院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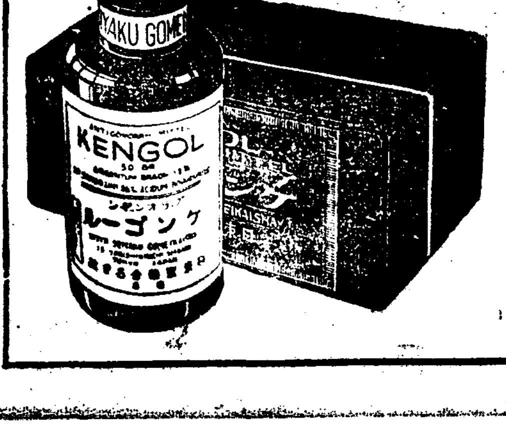
좌등영선생 佐藤榮先生

독신남녀때는 물론이요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은

부부협력하시와 겐고ー루로

치료하시사 속히 근치식혀버립시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엇재서 二重殺菌을 해야만되는가

『부라오銀겐고ー루』는 급성인 분이나 만성된분이나『一號』와 『二號』를 계속하여서 치료하셔야되나니 그理由는 먼저맘삼드린바와가티 변화하는병세에맛도록한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기쉽게말삼드리자면『一號』약성질과『二號』약성질을 가리쓰면 결국 재래의국소약(局所藥)처럼 단일의성능밧게내지못함으로 반드시『一號』로 병세를 다스르고『二號』로 암놈게하는 二重殺菌作用이라야만 림질을 다시 일에 근치시키게되오니 회하게서도이것을 잘명하고잇는바입니다

◇

약한방울로 단一分間이면 채료효과가 나타나는 림질근치약 『부라오銀겐고ー루』의 약가는 各號가同一하오니 보통약…一圓九十錢、十七日分…二圓八十錢이며 本舖에直接주문하시면 送料자급입니다 실험성적을 본사에서 부담하고대

東京市芝區新橋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二五〇一九)

請求하시는대로『림질자택치료서』를거저드립니다

이非常時에맛당한

健康한일군이되자

림질을完治

못하고게시면

① 고통과 번민으로 자기신세를 망하게만들

② 죄업는 남에게 전염식혀집안을 망하게만들

③ 국민건강을 해롭게하고 生産事業에지게됨

百發百中으로根治되는二重殺菌

의新發明治療法이 생겻습니다

지금까지 수만은 림질약이 생겻스나 完治率이 적엇든것은 어떤理由냐하면 첫재로써 회차께서 치료약과 치료법의 선택을잘못하신탓입니다 즉 림질의 병환근이 男女의 요도조직속에 병균이 들어잇는것을 똑똑히 깨닷지못하신 까닭입니다。그러므로 그곳에잇는 병균을죽이고 호지를 곳치랴고 먹는약을 복용하시고게신분이 만흐나 배속을 돌아서약간의 약기운이 오줌에섯겨 그곳을 지내게되는 內服藥의작용으로는 죽기에는너무도 구쇠의병균이며 암놈게에는 너무도업첫나게 큰농진이생겨잇기때문에 복약한사이에는 多數세가 개인듯하다가는약만끄치면또다시 再發됨은 이미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게신事實일것입니다。

그러면 엇더케해야 속히 림질을근치되느냐하면 엇지못할한조건과한께 병세에따라 상당한 기한을두는수도잇스나 病歷잇는 專門病院의 치료를 바더야됩니다。즉병세가변하는데따라 치료약의성질을 조합케되는때문에 더욱유효하오나 만일 病院에 못가시는 사정이게신분은 信用잇는 醫師專門藥『부라오銀겐고ー루』의 二重殺菌療法(이중살균법)으로치료하시면 病院치료와 똑가튼효과를 어더서 속히根治됩니다。즉 직접 병근인 힘부에 약한방울넘더면 가는듯이 병세가 낫어가는 양인데 더구나 지금까지의 치료재에서는볼수업든편해가는 병균의성질과 병세에맛게한 치료법—두가지약을쓰는—이것우되어잇는 만큼百發百中으로 根治됩니다

◇사진설명◇ ―마레네ㆍ디드리히―

趣味와娛樂

米國劇壇에도 新進俳優飢饉
映畵界와겨우折衷成功

米國劇壇은 新人을 養成해서 브로드웨이의 스테-지에 보냇다가 그것이 評判이 조흐면 곳 허리웃드의 映畵界에 빼앗기므로 劇壇은 新스타-의 缺乏에 쩔쩔매게되니까 自然히 映畵界에對한 怨嗟의소리가 노파지는데 일직이舞臺演出家로서 劇壇의 實情에 通曉하고잇는 윌러-ㆍ웽저-는 劇壇에對해 크게 同情을해서 수番 自己의 契約한 스타-인 시르비아ㆍ시드니! 헨리ㆍ혼다, 죠안ㆍ베네트의 三名을 劇壇에 融通出演식히는일에 成功하엿다。

이結果 시르비아ㆍ시드니-는 브로드웨이에서 벤ㆍ헥트 原作『귀-드에의往復』에 레스리ㆍ방크스와 共演해서 헨리ㆍ혼다는 四十六番劇場에서 바렌레인ㆍ데비스와『네바랄흡흔다』에 共演하고 죠안ㆍ베네트는 RKO에서 映畵化된『스테-지ㆍ도아』의 主役으로서 벌서 米國主要都市에 巡演하고잇다。

라디오

十日(水曜)

◇午後六時 兒童과先生의時間 一、才星サマ(讀本卷二、十三課) 二、渡リ鳥(讀本卷十、二課) 校洞普通學校兒童 一年生 五年生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菊花이야기』 申 翊 雨
◇同七時四〇分 講演(國民精神作興週間第四日)『堅忍持久、時局認識』『國民精神作興週間의本旨』 (譯講) 大野政務總監 田中德太郎
◇同八時一〇分 軍歌 [illegible] 萬歲 指導 鈴木美佐保 鈴美合唱團
◇同八時二五分 獨唱 一、제비와가리 델라카作曲 二、어머니가가르켜주신노래 드보르작作曲 三、牧童아네態度變해월스作曲 四、가마귀의노래 스코트作曲 五、…… 六、나의적은별 폰-르스作曲 劉美春 피아노伴奏 李春子
◇同八時五五分 連續講談(第三席)『分外不得』 [illegible]秋岡

十一日(木曜)

◇午後〇時五分 一、報念 二、새타령 三、農夫歌 申快童 丁南希 趙永學
◇同六時 [illegible] 明朗童話『이삭동무』 丁淳喆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神父 盧基南
◇同七時四十分 講演(國民精神作興週間第五日) 一、公德實行에對하야 (譯講)三橋警務局長 一、遵法精神의涵養에對하야 京城辯護士會長 李弘鍾
◇同八時十分 軍歌工夫 勇敢한水兵 指導 鈴木美佐保 鈴美合唱團
◇同八時二十五分 音律 靈山會相中에서 上靈山、中靈山、잔靈山가락도드리 上絃、잔도드리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東)大合唱(報國音樂會[illegible]) 關―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
一、混聲合唱(管絃樂伴奏) 君으[illegible]―도[illegible]作曲
二、混聲合唱(無伴奏) 가、國民歌 山田耕作作曲 나、新[illegible] 웨-바-作曲 다、野營의새벽 스이스메로듸作曲
三、混聲合唱(管絃樂伴奏) [illegible]『天地創造』中에서 하이든作曲 [illegible]神의榮譽
四、齊唱(管絃樂伴奏) 大日本 下總晥一作曲
五、混聲合唱(管絃樂伴奏) 國歌君ケ代
都下各音樂學校合唱團 大日本聯合合唱團 都下各大學專門學校合唱團 東京音樂學校生徒 管絃樂伴奏 [illegible]管絃樂團 指揮 橋本國彦 同 大和田愛羅 指揮 橋木國海

十二日(金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
◇午後〇時五分 一、吹打 二、"동친이" 三、打鈴 四、방아打鈴 三昌吹樂團
◇同一時一〇分 國民精神總動員中央聯盟大講演會―中繼 [illegible]所未定
◇同六時 兒童劇『찌저진우산』 全三幕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兒童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指導 洪[illegible]約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冬眠動物이야기』 大邱生物學教室 [illegible]
◇同七時四〇分 講演(國民精神作興週間第六日) 一、敬老愛幼에對하야
◇同七時五五分、講演 一、健康增進에對하야 速水城大總長 [illegible] 鮮滿拓殖[illegible]
◇同八時一〇分 舞臺劇―京城府民館으로부터中繼―『카츄샤』 第二幕 高元勳 二幕配役 裁判長孟晩 [illegible] 카츄-샤 [illegible] 書記金玉 [illegible] 南宮仙 [illegible] 李白 [illegible] 陪審長李軒 [illegible] 李元根 大佐宋在春 商人太乙民 職工組合長徐成大 看守文 [illegible] 外陪審員若干 劇團中央舞臺 脚色及演出 延鶴年
◇同九時 軍歌工夫『勇敢한水兵』 指導 鈴木美佐保 鈴美合唱團
◇同九時一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三、지름 [illegible] 李炳石 玄[illegible] 短簫 李[illegible]年

聖林의 新人들

돈ㆍ아미씨

世界映畵界의 新人으로 人氣를끄는사람은 여럿이겟지만 그가운데 돈ㆍ아미씨도 有名하다。여상한 일홈이므로 여러가지로 불리워저잇스나 이것은 伊太利系의 일홈이므로 아미씨라고 부르는것이올타。

마-케트大學을 卒業하고 地方劇場에서 主役이 病으로눕게되엿슬때 그의친구가 大學時代의 劇研究에 活動하던 그를생각하고 代役으로 推薦하야 半나절의 練習으로 代役을 훌륭히한것이 舞臺에서게된 動機엿다。

그後 부로-드웨이와 라디오로 比較的順調로히 出世하게되엿다。지금은 그의純直한 個性과演技가 調和를엇게되여서 사라리맨의 役으로는 누구라도 어사람아메 나갈사람이업다。身長五呎十一吋半 體重一七〇封度 褐色의머리털에 깜안눈을 가젓다。出演映畵는『鄕소리』『라모나』『네개의戀愛』『銀幕의女王』等이며 廿世紀폭스의 專屬이다

不意의用劫으로 大計도水流雲空
生死의絶頂에이르매 往時의捕虜도樹功如山

前局에서 白一〇八 未의十八은 神妙奇絶한 用兵이라고 하엿지마는 黑으로서는 意外의 奇襲이라 허는수업서 劫으로 局勢를 모라 不得已 黑은一一三 午의十五를 이으니 白은一一四 申의十五로越境連絡을하는지라 벌서 黑도 一死를 覺悟하엿슴으로 一一五 申의十六으로 虎穴에 드러가매 白一一六은 申의十七로 戰取하는지라 白은 다시 一一七 申의十八로 再入함에 白은一一八 申의十九로 또 戰取해서 彼此의 生死가 筆頭에 이른 絶頂이다。이로써보면 白이自陣의 東北邊角이 連續한가운데 黑으로하여금 無難히 圍入하게 하면서도 一〇二寅의 十六과 一〇四 癸의十五로 黑軍의 後方을 遮斷하기에 汲汲하든것이 果然 헛되지안흔지라 苦戰의 成果가 眼前에 이르렷스니 凱旋의 旌旗는 이將軍의 頭上에 오를것인가? 劫이 남에ㆍ黑은 一一九 丑의五로 白에게 取捨의 輕重을 무럿다。白도 이겨만흐는到底히 應하지아니할수 업슴으로 一二〇 壬의三으로 連結하니 黑은一二一 申의十八로 [illegible] 우선 이겻스나 前局의 [illegible] 보히비와가치 黑의 [illegible]에 往來하든 [illegible]圍의 秘策이 不意의用劫으로 [illegible]미아마 一朝一夕에 水流雲空이되고마니 一毫之差에 千里之謬라는것이야말로 果然이러한 形勢를두고 일홈이다。含憤忍辱하는 老將의心境을엇지 同情하지아니하리요。白은

●一一三	午十五
○一一四	申十五
●一一五	申十六
○一一六	申十七
●一一七	申十八
○一一八	申十九
●一一九	丑五
○一二〇	壬三
●一二一	申十八
○一二二	子十
●一二三	子九
○一二四	申十九
●一二五	丑三
○一二六	寅二
●一二七	申十八
○一二八	乙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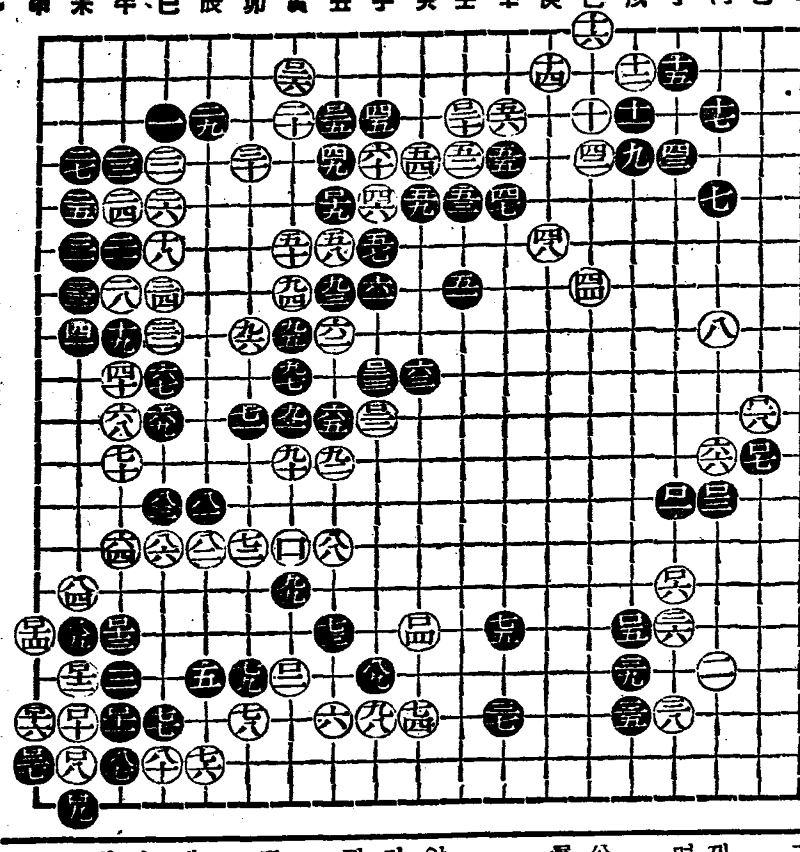
다시 一二二 子의十으로 包圍中에 드러잇는 自軍의 六二 丑의八을 導出해서 東南中邊의 黑軍을 殲滅하려하니 비록 西角의 黑軍에 比해서 이것은 얼마간 大小輕重의 差가잇다고하드래도 西角이 白으로말하면 本非我土라 一時奇襲이 奏效한것을 憑藉해서 이만한 陣地를 無難하게 戰取할수잇다면 그얼마나 큰樹功이겟는가? 黑도 이것을잠아 죽일수업서 一二三子의九로 應하지아니치못하엿다。그렁에 白은ㆍ다시 一二四申의十九로 劫을取하엿다。局勢를 環顧한 黑이 자못 得意의 우슴을 띄면서 一二五 丑의三으로 自軍의 四五와 四九와 一一九를 連해 一壘를 構築하니 비록 三圍四匝한속에드러잇는 四石에 不過하나 이것이 寅의二로 越點을 노흐면 南角中隅의 白軍大兵이그야말로 網中之魚에 지나지못하는지라 白도 不得已 寅의二로應하니 이包圍中에 드러잇는 黑軍의 四目이야말로 死諸葛走生仲達이라는 格이라往時에 捕虜의 犧牲이되엿든이 二石이 오늘날 自陣을위해서 이러한 樹功의 餘榮을 享受할줄 뉘알엇스리요。果然 天理人事가 함께 循環해 마지안는것을 여기서 짐작할수잇도다。

黑一二七이 申의十八로 다시 劫을取하니 이제는 白이 用劫할 차레이기는하나 四面의 局勢를 도라보매 果然幾處의 西角黑軍으로 더부러大小의 利害를 다툴만한데가어듸잇는가? 沈吟良久에 白은 一二八 乙의十으로 一矢를보내다。여기에對한 黑의應戰은 果然 어떠할것인가? (赤松子觀戰記)

國手爭霸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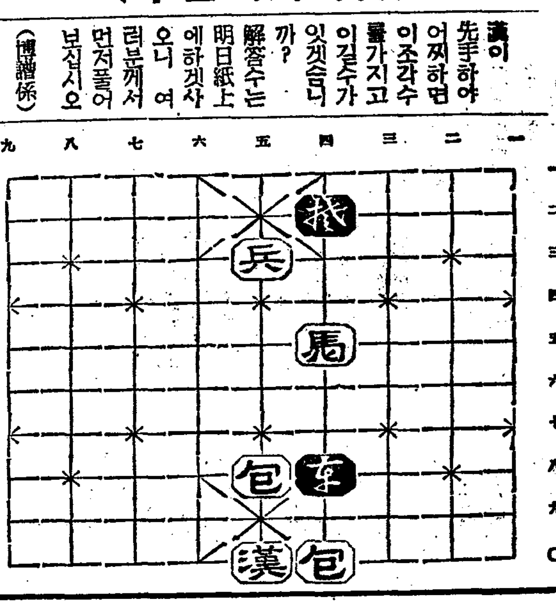
本社獨占

白 丁奎春
黑互先 蔡極文



◀漢이이기는수▶

漢이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解答수는 明日紙上에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풀어보십시오 (博譜係)



◇博譜大集 31 【問題】

婦人의美를빼앗고 婦人의軀를좀먹는 兇敵아―어놈을 殲滅석힙시다

冷性『及帶下』內外療法

只今皇軍은 暴支膺懲하려고 눈물겨운勇戰으로서 北支에 南支에 猛烈한戰鬪를繼續하고잇슴니다 벌서 입에의고 귀에저젓스리만치 우리들은 銃後의 守護를외치고잇슴니다마는 어느때꿋치날지모르는이戰鬪가繼續되는限 우리들은 더욱더욱마음을 굿게해서한層더소리노피『銃後守護』의實行과結束을 외처야할것입니다

【거기】에敵機가投下한一顆의燒夷彈을 發見할때는 即時에달려가서 準備해두엇든모래를 화뿌리다면燒夷彈도그대로 꺼저버립니다。이때―女子일지라도 山의로깨보다도더빨르게 달려가지안호면안됩니다。公署에―부엌일에 熱中할것 논에―밧테―工場에―官 그 實質性이 即銃後의守護입니다

【蒼白】한얼굴―힘업는 얼굴빗、서름서름 알는병 그것은 此際에 皇軍을 가로마든 支那兵가티 掃蕩해버리십시요

筆者는 다음에 有益한『內外療法』을 傳해드림니다 먼저筆者는 일로부터의 氣候에弱한 婦人이 第一苦痛을밧는 白帶下의 治療法에對해서 이야기하겟슴니다

【白帶】下와 冷症은 서로라다키는것이라해도 조흘것입니다. 白帶下의 容態에對해서는紙上에詳細히 說明하잔어도여러분께서 벌서아실줄 생각되므로 여기에는 記錄치 안켓습니다마는 어病에걸리게되면 아모리『明朗』하게 되려고해도 머리가무겁고 氣分의 憂鬱을 禁치못하게되므로 結局 얼굴을지프리게되고 夜間에는잘수가업게되여 아침에는元氣가업고 晝間의일에도 自然히鈍하게됨니다 게을하고 고단하다는 婦人을調査해보면大概가 冷性과白帶下의傾向이잇슴니다。

【一般】으로白帶下의 治療法이라면 直接 局所療法을 생각하는가 봄니다 이미市場에는 여러가지 膣球、坐藥의類를販賣하고잇슴니다。어느거나 흘러나오는 汚物의排泄量『分泌物』을 減少식히는作用이잇슴니다

【그러】나이러한局所의治療만으로는 얼마 아가서、元症狀이 도저서 언제든지 가분해지지안는것입니다。筆者가여기에 內外療法이라는말을揭示하엿슴은大端히 意味기픈 致謝여잇는것입니다 먼저어느분이나 本文의冒頭에 表示된 挿繪와寫真을 보십시요 자세하게이 繪畵의理解해주십시요

【局部】의더러운帶下를씻서버리고나서 不潔할때와比較해서생각해볼때에、박게서―다만 下水만을掃除한다고해도깨끗한 掃除로는되지안습니다 下水와함께 안에서부터大門압까지 깨끗하게해야할것입니다 即內外로不潔의根源을 除去할硏究가必要합니다

【거기】에는 저有名한中將湯을 服用하십시요 中將湯을服用하면 몸이即時따뜻하게됨니다 輕한帶下(惡性아닌 帶下)면는 먹는것만으로 거즛말가치 나어버립니다、近來의젊은 인테리婦人으로 이러한것을 말한일이잇슴니다。

『中將湯은 確實한 効果가잇스나舊式의 湯藥이라서실어…』이것은大端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中將湯가든藥은 藥草를그대로煎湯에끄리므로 貴重한成分이 完全히 服用한어의 體內에作用하는것입니다 만약藥草를 錠劑와丸藥으로 만든다면 中將湯의優秀한 藥效는 半減됩니다

【中將】湯은別名을『주워 모르는妙藥』이라고합니다。冷性을곳치고 白帶下를 除去하는대는 이한지조흔藥이업슴니다。中將湯은 어느藥店에도잇서서 二十錢、五十錢의小袋부터 잇사오니 곳사서써보십시요

最後에 添加해둘것은 白帶下惡性의 帶下로 괴로워하는이는 먹는藥의 內面療法과倂合해서 中將球라는 坐藥이亦是아무대의 藥店에나잇사오니 여것을써서 內外療法의 實을나타내여 銃後의婦人으로서明朗하게元氣엇게일하십시요

12―10B

冬の御洗顔は (겨울의세안은) 必ずクレンジングで (반다시 구렌징으로)

獨特한淸掃力으로毛孔의속까지完全히淸掃하야속속드리어여뿐若肌를만든다

살거침의季節은 洗顔이가장重要!!

겨울의美容工作은 먼저 살결을完全히 淸掃하는것입니다 特히湯水의 洗顔은 살결을거칠게하는故로 朝夕의洗顔은 特殊한 美肌作用을가진 ウテナクレンジング을 使用해주십시요 石鹼으로도 안버서지는때와더러움은勿論 皮膚深部의不潔物을 完全히 淸掃해서 皮脂의新陳代謝의機能을旺盛케하고 몰나볼만콤 어여뿌고健康한青春肌를만듭니다

正價・六〇錢

★國産最高의洗顔料★

ウテナクレンジングクリーム (우테나 구렌징 크림)

12.11―4.7

ウテナ化粧料本舖 株式會社 久保政吉商店

船腹不足影響太甚 穀物出廻에支障

臨時借用船조차求之不得 仁川沿岸貿易極不振

【仁川】 인천은 조선에유수한곡향이니만큼 수이출되는 백미가 가장 만흔관계이나 금년은사변이후로 판신(阪神)경빈(京濱)방면의 선복이부족됨으로 백미수이출에 가장 큰지장을 일으키고잇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이와한가지 서해안일대의 연안무역에대한 선박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전체적으로 선복이부족한중에 더욱이 금년은 풍년이자 근일은 곡물출회의성기임으로 선박에대한부족을 느끼게될뿐만아니라 연안무역에가장큰 타격을주게됨으로 인천상공회의소의알선으로 선박업자들이 「차다ㅣ」선(臨時借入船)을찾게되야 멀리조오(朝運)에서 이척을채입하야 황해(黃海) 충청(忠淸)방면에 제공하고잇다는바 아직도 현상으로는 십여척이 더필요하야 당업자들은 전기「챠다ㅣ」선을 계속탐구중이나 그것조차부족을늣기게한다한다

楊州서도戰勝祝賀

【楊州】 의정부(議政府)에서는 태원(太原)함낙과 일독이(日獨伊)방공협정(防共協定)을 축하하기위하야 구일오후부터 시내 신시(新市)[illegible]에서 [illegible] 시내를 [illegible]하얏는데 [illegible]

楊平聯合靑年團總會

【楊平】 지난십일오전십시부터 양평공보교(楊平公普校)에서 양평련합청년단(楊平聯合靑年團)제일회총회를 개최하고 양평신사참배와 국가합창 황거요배 소서봉독이 잇슨다음 단장림(林)군수와 부단장좌등서장(佐藤署長)으로부터 현하시국에대한 훈화가잇섯고 [illegible] 각단의 단원으로하야금 국민정신의발휘를 도모하고 견인지구(堅忍持久)의 정신을 [illegible] 라디오체조등 경기가잇슨다음 오후세시반에 산회하얏다

仁川에서도旗行列

【仁川】 파죽지세로 승승장구의 기세를 올리고잇고 황군의무운은날로 각지에서 전승을전하고잇는바 지난번팔일은 마침내 문제의 태원(太原)을함락하얏다하야 인천부에서는 지난구일 오후일시부터 만여학생의 장사진으로부터 부내전체의 기행렬이 성대히거행되얏다한다

太原陷落祝賀 永登浦서旗行列

【永登浦】 시내영등포정에서는구일오후일시 태원함락의 축하를 겸하야 일독이(日獨伊)방공협정의 축하를 겸한 기행렬을 거행하엿는데 참가단체는 경내에잇는 국방애국 량부인회 재향군인회 방호단 각청년단 소학교 보통학교 각공장 신문기판등 무려만여명이나되는 장사의 행렬을 지어가지고 신공전을떠나 역전 광장ㅣ종방ㅣ동방ㅣ경기염직ㅣ시촌ㅣ동사공작ㅣ경성연와ㅣ조선피혁ㅣ중촌ㅣ연예관아플지나 부출장소아페 이르러 천황폐하 만세삼창으로 해산하엿다

開城서도旗行列

【開城】 북지전선에 결전적 승리라고 볼수잇는 태원(太原)함락의 전승을 [illegible] 기행렬은 개성에서도 장엄히 거행되엿다 즉 [illegible]

飮食店組合도獻金

부내서게정(西界町)삼십사번지 [illegible]

安養↔果川間의 自動車開通要望

市內電話의 架設도申請中 發展始興의兩大問題

【永登浦】 조선의수도대경성의린접지이며 남선각요지의 판문으로서 최근장족의발전을 보고잇는시흥군(始興郡)의 중심지안양(安養)은 군내의생산품 집산지대로 교통의요지에 잇슴은물론 현재 조선직물회사(朝鮮織物會社)를비롯하야 장차 공장지대로서도 유망한곳이며 떨어서도내의명승지인 경기금강(京畿金剛)관악산(冠岳山)을 중심으로 춘하추동사기를통하야 등산객으로 교통이번화하며 과수재배로서도 전조선에유명한곳인만큼 최근의발전은 실로괄목할바가잇서서 날로시가지의번창이 일신하여나가는터인데 아직까지 시내전화의시설이업서서 크게유감으로 지내오다가 얼마전에 주민들의 열망으로 체신당국에 그가허가를신청하엿스며 떨어서 안양(安養)과과천(果川)간의 승합자동차도 지방발전촉진상 초미의급무로되여잇슴으로 유지 리광순(李光淳)씨는 채산을 돌아보지안코 봉사적으로 이것을 경영코저얼마전에 도당국에 허가신청을하엿다는데 일반은 속히 개통되는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이상두가지문화시설이 실현되는날에는 농공병진을 주장하는오늘에 잇서서 지방발전상에는 물론 국가후생상에도 큰도움이될것이라고기대된다고한다

厚德한全地主

【仁川】 한말의 추수꾼이라도 소작인으로부터 더가저가랴고하야 지주와 소작인간에 쟁의를일으키고잇는 강박한 이세태에 린근에업는 저렴한 소작료를 고집하는 모범지주가잇다 그는 경성부 중시정(京城府[illegible]町)거주 [illegible]씨로 약십오년전에 부천군 서곳면 [illegible]리소재토지 약오만여평을 지금으로부터 십오년전에 매수하얏슨바 동토지는 당시에도 조로 백석에 정하여잇든것이나 그간 작인들의 열성으로 질박한논 토지가 비옥(肥沃)하게되야 매년 소출이 오, 륙백석에 달한 금일에도 여전히 지주는 종전도조 백석만을 바다가므로 소작인(小作人)들은 매인 평균이십석추수에 지주에게는 오석밧게아니보내는 근래에보기드문 도조로 소작인삼십여호가 가장 유래한 생활을 계속하야오는바 저간악덕배들이 『본보기』를노아 지주에게 이토지를 사라하얏스나 지주는 이에불응할뿐아니라 년이백석도조에 달라는사음들이 잇서도 그는한상동토지는 작인의열성으로 옥토가된것이니 더 나는소출은 작인들이 차지할것이 당연치안흐냐하며 일축하야 바리엿다는바 이에소작인 삼십여호는 씨의토지에 감사키마지 아니하며 또한근세에 보기드믄 씨의미행을 칭송하야 마지안는다한다

白菜는二割싸고 "무"는約五割이나低落

開城의"김장"市勢昨年과比較

【開城】 우리의 식탁에왕좌(王座)를점하는 김치담금철이 개성에도 본격적으로 차저와다가 봉순비에 착실한 개성부녀들도 "일동"전 김치래야 제대로의 어맛이잇다고 벌서김장준비를마친집이 만흔데 아즉못하고잇는집은 "싸라리맨"층이니면 빈민계급들로 좀더김장갑이 떠러지기를바라고 잇다 그반면에채소상들은 날세가더풀주워 배채갑이 폭등하기만 바라고잇는 형편이다 그러면 요즘개성 김장시세는 어떠한가 호백채한통에 최상십전 최하삼전싸리까지잇는데 보통시장에서 제일만히팔리는것은 오, 륙전짜리로 작년보다 이삼전이 싼세음이라 한다 그다음"무"는 한접(百個)에 최상 팔십전으로부터 최하 삼십전까지잇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배나싼세음이라한다 여기따라 일반양념값도 작년보다 떨어서 싸젓다는데 지난구일 시세는다음과갓다

미나리 一束五錢 생강 一斤十三錢 갓 一束五錢 파 一束二錢 고초 一斗五六十錢 청각 一束二十錢 실고초 一匣二十六錢 (十一月九日開城府市場調査)

平康普校兒童美擧

【平康】 전국적으로 총동원되는 국민정신작흥주간에잇서 평강보통학교생도 육백칠십여명은 국민정신을 철저적으로 작흥발휘하는 의미에서 아동들의 공동봉사로 황군의분전을 만분지일이라도 감사의정을 표현하고저 지원일동파하게 산야에나가 싸리비(乾草)[illegible] 백칠십개와 [illegible]를 작업하야 지난칠일에 국민정신작흥주간제이일에 짤어모흔돈이십일원오십전을 평강경찰서에헌납하엿다는데 당국에서는 주간제이일에드리 어가른 어린이들의 적성을 감사히바더 곳군당국에 전달하기로 하엿다한다

地方人事

◆丸本善治郎氏(前蘇萊警察署在所首席) 今般仁川警察署外勤部長榮轉人事次本報蘇萊分局來訪

孝村學校에曙光

李崔兩地主의特志로

【楊州】 양주군 망경면 효촌리(楊州郡[illegible]面孝村里)는 면내에서 가장 궁벽한데 잇서 교통이불편하야 소학아동의 통학의길이 업슴을 유감으로생각하야 면내유지는 물론군당국에서도 이에유의하야 지난여름에 효촌간이학교(孝村簡易學校)의개교를보게되엿스나 일반경비의 부족으로 비품등의 불비와 교수상으로도 불편이만흔바 경성부 의선정(京城府[illegible]町)리병직(李秉直)씨의 토지로 매년삼백원식 경비를 자담하겟다는 명랑보가잇스며 실습답(實習畓)삼백평의 희사가잇섯고 또 교사(敎舍)증축에도 상당한기부를하겟다는 언명이 잇섯스며 경성부 의선정구칠(京城府[illegible]町九七)최선두(崔鮮斗)씨는 실습전(實習田)으로 [illegible]

飯米畢節約獻金

【金浦】 지나사변이 발발한후로 김포군내에서도 총후의 [illegible] 저히하기위하야 국방헌금에열중하는바 [illegible] 조선인음식점조합(朝鮮人飮食店組合)의 조합장 전명진(田明鎭)씨외 [illegible] 일개월동안부터 국방헌금을 모집하기시작하야 구일에 현금일백이십원을 모아가지고 그중 팔십원은 직접 [illegible] 애국부에 헌납하엿고 삼십원은 [illegible]를 통하야 헌납하엿다

面書記採用試驗 洪川郡에서施行

【洪川】 홍천군청에서는 면서기채용시험을 오는이십일 오전구시부터 행하리라는바 규정은다음과갓다

一, 試驗日時 十一月二十日午前九時
一, 試驗場所 洪川郡廳
一, 試驗科目 國語, 算術, 作文, 書字, 口述
一, 出願期日 十一月十六日까지

高齡者招待慰安

【洪川】 홍천군에서도 「국민정신작흥주간」으로 지난칠일부터 일주간 실행중이든바 [illegible] 경로에(敬老宴)[illegible] 초대하고 위안회를 개최하리라는 바 자미잇는여흥도 잇스리라하야 [illegible]

平康서도戰勝祝賀

【平康】 [illegible]

北方面의第二公普校 基地問題로말성

洪川郡面民에不平漸高

【洪川】 교육기관이 완비치못한 홍천군(洪川郡)에는 소화십일년도에야 일면일교제가 완성되고 [illegible] 실시에 착수하엿는데 북방면(北方面)에서도 면민대표가 선두에나서서 활동하야 [illegible] 지원부담금 수천원이 [illegible]

花冠 (99)

長篇小說 李泰俊 作 金奎澤 畫

새정렬 (四)

[illegible]

補精腎氣强壯에 神秘的靈効를가진全世界에唯一한高貴의實彈品이외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 說明書請求次第無料進呈함
海狗腎 新品到着
果然 百發百中 證明品
釜山府草梁町四一八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 一一八二番 振替釜山 七九二二番

회충구제량약 산토니넴 (珊篤尼涅菓子)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무서운蛔虫을驅除합시다! 蛔虫은每日食用하는野菜김치等에附着해서人體內에드러가서體內에生長해서發熱腹痛嘔吐貧血夜泣等其他各種病의原因이됩니다特히小兒는蛔虫에걸리기쉬운故로每週日曜日에는예전부터信用잇고잘듯는岩崎大海堂세멘菓子를服用식혀서이무서운蛔虫을驅除하고애기네를健康하게길러주십시요
類似品잇스니 商印에 注意
本舖 大阪天王寺 合名會社 岩崎大海堂

釜山競馬
十一月 十三日(土) 十四日(日) 廿一日(日) 廿二日(月) 廿三日(祭) 廿七日(土) 廿八日(日)
(午前十時開始)
馬券 發賣 勝馬投票券面 五十錢 (單複式)

眞好業 [illegible]
朝報案內
探偵 [illegible]
醫院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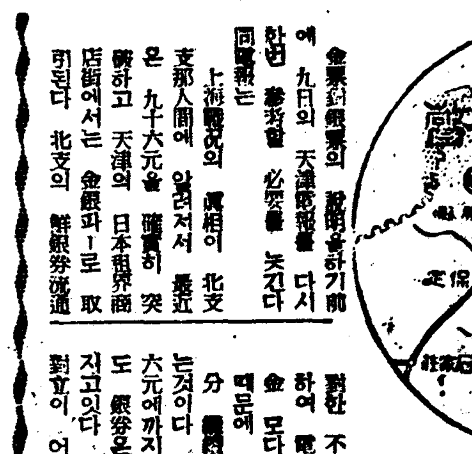
●定評ある!詳解漢和大辭典!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定價三圓八十錢を夕夕の一圓卅錢で大投賣す
千五百頁大册
御註文は至急を要す
●少年送年號 本月十五日發賣●
國民學元日報係

特許 登錄商標 淸水式無砂精米麥機
最新型 의特長
一、能率倍加 一、搗減半減 一、販賣好適 一、耐久無比
代理店
淸水商會

全鮮特産、殺菌消化、調味芳香、効力偉大、
백알 乾大溼
朝光酒 京城販賣部
永成釀酒
詰壜

ランランポマード
란란 포마ㅣ드

三好クリーム
新時代의進步된 三好의姉妹品!
憧憬의美肌와 化粧美의完成을爲하야 三好クリーム、三好水白粉을잊지마십시오
三好クリーム는 化粧下로서 理想的입니다。白粉이잘먹고、오래가고、明朗한化粧이 손쉽게되고、살결이根本的으로곱게됩니다
三好水白粉은 새로운化粧으로 新女性間에서 大好評입니다
色이나、香이나、質이나 가장進步的인水白粉입니다 外出時에簡單한化粧으로魅力百點!
三好化粧水 三好刷白粉 三好煉白粉 三好香油 三好香水 三好口紅 三好포마ㅣ드 三好頰紅 三好石鹼 コリア石鹼 其他本社製品五十餘種
京城府 三好化粧品株式會社
三好水白粉



金券恒久安定
根本對策必要
日本商品進出期待

金票對銀票의 說明을하기前에 九日의 天津商況을 다시 한번 參考할 必要를 느끼다 同電報는 上海戰況의 眞相이 北支支那人間에 알리워저서 最近은 九十六元을 確實히 突破하고 天津의 日本租界商店街에서는 金銀파ー로 取引된다 北支의 鮮銀券流通은 四千萬圓에 達하며 反面에 支那側銀行은 依然히 金券을 賣拂하야 貨出制限을 하고잇고 銀券의 退藏, 金券에 對한 不信, 其他 稅金을 비롯하여 電料, 水道料等 諸金이 모다 銀券에 限定되기 때문에 金銀의 相距는 當分 繼續되리라한다。는것이다 朝鮮銀行券이 九十六元에까지 好勢를 보이면서도 銀券은 그대로 勢力을 가지고잇다 여기에 經濟勢力의 對立이 어떠하다는것을 알수잇다。

◇ 記者가 平津地方에 與會하는 金票는 百圓이 九十二元으로 換算되엇는데 이것이 支那側商人에게서만 그러하엿느냐하면 그러치 아니하여 天津日本租界의 日本人商人에게서도 大部分, 換算을 當하엿다 勿論支那人側에서도 食料品商、其他日本商品만을 取扱하는곳에서는 小賣에 限하여 金票를 그대로 밧는곳도 잇엇다 그러나 大部分은 銀票가 標準通貨가 되여잇서 日本人旅館에서도 반듯이 換算하는것이 通例이엇다 더구나 佛租界나 英租界에 가면 朝鮮, 日銀券은 換算을 해서라도 바드려고 아니하는것 조차 잇엇다 그만큼 通貨에 對한 觀念은 嚴格하엿든 것이다 그러든것이 今日 金, 銀券이 「파ー」로 取引될수잇슴을 보게된 事情은 最近 日本軍의 北支擴大에 따라 支那人에게서도 아즉 金券에 對하여 信用을 두고 안두는것보다도 그만큼 通貨價値에 對한 彼方의 根據가 어느程度까지 깁흔가를 살피지 안흘수업고 此方으로서는 金, 銀兩券의 對立을 前提로하지 안흘수업는것은 金券의 銀券에 對한 勢力擴張도 重要하겟지만 勿論, 그以上의 어떤 根本對策이 하로밧비 잇서야할것이다 모든 經濟活動은 여기에서부터 順路를 밟어갈수잇슬것이다。

◇ 金, 銀券兩者의 高低는 곳 物價에서 表示될것은 勿論이다 最近의 事情을 보더라도 九十二元으로 換算되든 銀券이 九十六元으로되엿다는것은 金券의 勢力이 同時에 銀券의 低落을 表示하는것인데 그러타면 銀券을 主로하는 支那人은 어느商品을 需要하고잇는가가 問題이다 支那人이 取扱하는 商品이 支那人의 製品이라면 그러코 又는 외엿슬것이다 即 一般商品으로부터 原料, 그外生計費가 다 銀券으로 計算되고잇다면 金券은 모르거니와 日本商品이 需要되고잇고 또 勞賃其他가 金券에 依存되여잇다면 銀券의 低落은 곳 物價의 昻騰을 보게되며 生活의 根據가 根本的으로 動搖되엿슬것이다

◇ 그러면 北支에 日本商品이 얼마나 들어가잇는가 하는것은 金券의 流通高如何와 그 前途에 對하여서도 重要한 解答의 하나가 될것이다 北支에는 그間 日本商品이 相當히 들어가잇는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아즉 支那人側의 購買力이 金券을 通하여 어느程度인가 하는것은 아즉 알수는 업다 그러타고 日本商品의 進出이 업다고는 할수 업다 그러나 이로써 支那民衆에게 金券이 滲透되엇다고 할 수는 업다 다만 日本商品의 進出이 今後 金券의 流通을 左右할 重要한 要素라 할것이다 이와 關聯하야 北支의 政治工作과 經濟工作이 並行하야 民衆의 信賴를 얻을수잇다면 金券의 前途는 明朗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는 아즉 時日을 要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銀券의 價値를 維持하면서 金券의 流通을 圖謀하는 方策이 講究되여야할것이다 (終)

年末繁忙期의 鐵道輸送對策
特殊輸送으로局鐵滯貨十萬噸
年末엔滯貨廿萬噸?

鐵道局에서는 數日前에 局關係者及 各鐵道事務所配車事務擔當者의 會合을 열고 年末繁忙期의 輸送對策其他에 關하야重要한 協議를하엿다 지난 七月中旬以來 實施된 時局關係輸送으로 말미아마 一般貨物 輸送은 顯著히 圓滑을 缺하고 더욱이 季節貨物인 『세멘트』木材等 建築材料의 輸送이 顯著히 阻害되여 躍進途上에잇는朝鮮土木建築界에 對한 影響이 不少한터인데 이제 또 年末繁忙期를 目前에두고 局線內의 滯貨는 十萬噸을 不下하는터이라한다 그리고 北支에 드러가잇는貨車로서 當分間返還될 餘望이업는것도 不少하며 彙하야 本年度新造車는 亦是 時局의 影響을 著히 減少한때에 出貨는 制二以上의 增送을豫想하게됨으로設令 大量의特殊輸送이 업는때에 라도 繁忙期에 當해서는 使用車는 要求車의 五割以下로되야 滯貨는 二十萬噸을 超過하게될 터이다 即現在以上運用順의 增加는 困難이므로 極力貨車速力을 빠르게하야 運用效率의 向上을 圖하고 可及的輸送圓滑에힘 써서 幾分이라도 輸送力不足에 因한 朝鮮産業界에 及할影響을 緩和하기로되엿다 그래서 各運輸事務所에서는 驛長會議其他로서 이 情勢를 說明하야 미리荷主의 諒解를求하고 善處하도록 慫慂할일

▲運用車의 運用效率을 向上시키기 爲하야 停留時間을短縮시키도록할일
▲主要驛에서는 夜間作業을實施할일
▲貨車共通使用의 徹底에힘써서 特別한境遇를 除하고는 貨車選擇을 하지안흘일
▲修繕車의 停留時間의 短縮에힘쓸일
▲定量貨物의 輸送에 再檢討를하야 指定輸送은 有利하다고 認定하는것에 對해서는 이것을 實施할일
▲中間車는 可及的整理를하야 積載貨物僅少로 運用上支障이無한時는 前途運行中止等의 手配를할일
▲局線入込中의 滿鐵車는 可及的返路를 利用하야 全區間에 空車返送을 避할일等等이다

材料輸送難
私鐵工事遲延

朝鮮內의 新規鋪設私鐵道는 前年以來 一齊히 着工中이나 本年夏以來의 工事材料輸送制限其他로 豫定計畫에 比하야 相當한 遲延을 免치못하는모양인바 竣工狀況은 今十月末로써 左와갓다
◇多獅島鐵道 二、三工區는 竣工 一工區는 九十八% 四工區는 五十%
◇京春鐵道 一工區三五% 三工區一五% 四工區三六% 五工區二六% 十一工區八% 其他 着工中
◇平安鐵道 一工區七五% 二工區七六% 三工區七一%
◇端豐鐵道 一工區九四% 二工區八九% 三工區八四%
◇三陟鐵道 一工區着工 二工區三七% 三工區六〇% 四工區三一%

各商議의物價調查統一
來年一月부터實施決定

全朝鮮各商議의物價調査는 從來各商議에依하야調査品目、指數算出方法等이 區區하야物價指數가 不統一이엇스나今夏全朝鮮商議의 物價調査主任이 會合하야 協議한結果 調査統一의原案을 朝鮮商議에서 作成中이든바 左와가튼方法으로統一하고 來年一月부터 實施키로되엇다
一、調査品目을 九十種에서 八十種으로 減하고統一함
二、從來卸、小賣指數共히 同品目을調査하얏스나 來年부터卸、小賣共히各別個로 指數를作成함

米價差顯著
産地와消費地間에
資減少、輸送不足、檢査關係로

本年의米界에는 內鮮이모다産地市勢와 消費地市勢의 두가지 市勢가잇고 特히朝鮮에잇서서 그 傾向이 重要視된다 이것은 內地에서 農村의勢力不足이 影響되어 米의滿鮮運送을 招致하고 이것이 主因으로된듯한데 朝鮮으로서는
一、輸送機關不足 就中鐵道其他의不圓滑
一、米買付資金이 例年에比하야 減少되엇고
一、人夫不足과 正租檢查의 關係等에依한것으로 朝鮮內에서도地方 仁川、群山等에는 相當한差가잇고 또內地主要市場間에 朝鮮가크다한다 라할것으로 그中에問題는 當面의 非常時的船腹不足에 對應한三者協議로서 當面産地荷主側으로부터 責任輸送이 要求되는터인데 船會社로서는 限定된船腹供給받게 所有지안흔만큼 이要求에 應하기가 至難하며 이리受는 不可能하다
從하야 配船責任은 要컨대容易히 解決될것갓지안코 이것이諒解가 成立되면 運賃値上과가튼것도 船會社가 不當한要求를 提出치안는限 잘折衝되리라한다

簡保契約狀況

朝鮮簡易生命保險의 十月末現在契約數는 三十萬九千三百件 其月額保

輸送會議
形勢險惡
配船責任問題로

問題의 朝鮮米輸送會議는 明十一日부터 京城에서 開催케되어 內地荷主代表、船會社代表는 入京中인데 同會議에對한 事前의形勢는 相當히 險惡하고 特히 配船責任問題로는 暗礁에걸릴것으로 憂慮된다 即今次會議는 輸送圓滑對策協議

朝鮮貿易總額
十二億圓突破

朝鮮貿易은 躍進朝鮮의 各部門에互한 飛躍의 實體를表示하야 十月末現在로 이미輸移出五億二千萬圓 輸移入七億一千萬圓合計十二億三千萬圓에 達하고 圓을에 比하야 約三倍大의 飛躍的增加이다 一個年十三億五千萬圓을 肉迫하는 活況을呈하고잇고 今後二個月로三億을넘어 年間十五億圓突破가 示現되리라고 豫測되는바 數年前의 五億圓臺에 比하야 約三倍大의 飛躍的增加이다 輸移出一割、輸移入一割五分의增加를示하야 昨年一個年十三億五

法幣

法幣라는것은 支那의 銀行이서 發行한 紙幣를 가르친것이다。支那에서는 日本과 달러서 웬만한 銀行에서는 모다 紙幣를 發行하고잇는데 其中에는 中央、中國、交通、四明、商業儲蓄、中國實業、中國通商、浙江實業等이 主要한 銀行으로서 이 銀行이 發行한 紙幣는 어느 表記價値에 通用이 되고 어떤것이든지 法幣라할수잇다。그러나 其中에서도 中央、中國、交通의 三銀行은 政府銀行이오 그紙幣流通은 一般民衆으로서도 그代價를 支那全土에 넓리 퍼저잇스므로 法貨라하면 이 三者를 指稱케된다。支那는 一九三五年十一月新幣制 本位에서 永年의銀本位時代에서 脫却을 結果하고 依하야 貨幣의 價値를 維持되기 爲하야 法幣發行高는 이미 合計十億元을 超過하엿다고하며 本位時代에 잇서 現銀을 집어서 集中에 引落하기 안흘것이다。그러나 法幣가 休紙가될것으로 그것은 何如間에 目前法幣의 困難에 對하야 支那政府가 어떠케하야갈지 戰局進展과 共히 注目된다。

事變勃發以來 法幣에 直接해서 時勢觀가 생기엇는데 支那政府가 預金拂出制限 爲替先物取引禁止等의 人爲的을 쓰고 日本을 除한外國銀行의 援助等에 依하야 法幣의 價値가 간신히 維持되기는하나 法幣發行高는 이미 合計十億元을 超過하엿다고하며 爲替資金도 涸渇되어 法幣崩落이 刻刻切迫되고잇다。新政權이 沒落된다면 法幣는 休紙가될것으로 그것은 何如間에 目前法幣의 困難에 對하야 支那政府가 어떠케하야갈지 戰局進展과 共히 注目된다。

新知識

年末엔滯貨 — 大東京工場調査

【東京】東京市監查局에서는商工省의工場調査規定에 準하야 昭和十一年의 大東京市域의工場調查를行한結果 如左히發表하얏다
一、工場總數 一四、〇八八
一、職工總數 三六六、三九八人
一、設備原動機數 二九〇、八一一台

鰮油肥低落

不漁豫想에서 一轉하야 豊漁를謳歎한 東海岸의鰮漁業은 遂로 鰮油肥가 下押傾勢이다 即魚油는 十一月上旬의 不定量入札은 國際契約으로 日本油脂와 契約이엿는데 그價格은三圓三十八錢으로 前月의定量에比하야 九錢低이다 一方魚肥는內地市勢는 船腹難關係로 十月比十一月物五錢低를示하엿슴에 不過한터이나 大增産의壓迫은 當然視된다

同年中의生産總額은 十八億三千八十一萬五千餘圓으로 이것을 前年에比하면 工場數四%、職工數一一%、原動機數一三%、生産額一五%의 各增加이다。戰時體制下에잇서 機械器具工業、金屬工業、化學工業이 特히活況이엇다

八千町步의造林撫育地
林業開發會社서着手

朝鮮의林業開發會社는 來年三月末의 本年度中에 造林撫育地로서 國有林八萬五千町步의 拂下를受할터인데 右拂下地는 慶北、江原、忠北의三道에互하고其中八千町步를 撫育地로서 目下大阪技師가 現地에出張하야 地均工事中이라한다

勞賃金萬三千九百圓 保險金額二億二千三百二十五萬圓인바 人口千人當 契約狀況을보면 內地人은 人口千人에 五百九件 朝鮮人은 四十一件이다

保險金額二億二千一百六十八萬六千三百件 其月額保險料七千八萬九千五百圓 保險金額一億五千四百二十一萬圓 合計百十七萬五千六百件 其月額保險料百十八

北支貿易再檢討

京城商議 北支貿易調查團一行은 二十四日부터 大連、奉天、天津、北京、秦皇島、山海關、營口、錦州等을 經由하야 七日奉天에서 解散, 自由行動을 取하얏는데 八日午後 歸任한 大陸京城商議調查課長은 如左히말한다
▲塘沽改修問題 三十年來의白河洪水에依한 泥土砂의 堆積에依하야 九百噸의船은 塘沽에 드러가지못하고 九百噸以下의 小船으로 北支貿易을 運하면 至極히 便利할것이다
▲關稅問題 天津에서 塘沽를經하야가는 物資는 排日關稅를 賦課함으로 目下 北支貿易을 支配하는 冀東政府의所謂冀東特殊貿易에 依하는外에업다 高率關稅는 米一等一枚에對하야 七、八圓乃至 十圓이다
▲金融問題 天津에는支那銀行二十이잇는데 支那側의銀行은一週

日滿硫安輸出入
許可制今月限撤廢!

【東京】政府는 現在日滿과關東州下에 實施되어잇는硫安輸出入許可制를 今月限撤廢하고 來月一日부터 그輸出入을自由로하기로決定하얏다

經濟界消息

○東拓鑛業四分配據置=東拓鑛業에서는 前月末로써 上期決算을 마감하고 田淵社長은 十日發 決算案을携行、渡東하얏는데 總會는 十一月末 東拓本社에서 開催키로되엿다 增配說도잇스나 安川總裁의 堅實方針으로 四分配現行据置로되리라고
○仁川視察團天津到着=【商通天津發電】仁川商工會議所北支視察團一行金鋼燮、許仁淳等諸氏는 山海關을 經由하야 六日天津着、朝鮮貿易協會、商工會議所其他를 訪問、八日北京에 向하얏다고
○林業開發職制決定=朝鮮林業開發職制는 如左히 決定하얏다
▲庶務課(足立理事擔當)▲監理課▲造林課(伊藤理事擔當)▲計畫課 以上四課로서 造林課長은 大薗勅氏가 任命되고 남어지三課長은 當分理事兼任이라고

上旬貿易出超
一千二百九十九萬圓

【東京電話商通】大藏省發表=十一月上旬對外貿易概算調查는如左하다(單位千圓)

輸出	八五、〇六六
輸入	七一、〇六九
合計	一五六、一三五
出超	一三、九九七
一月以後入超累計	六七四、一三四

株式
鈍重이나底堅

今日의市勢 [十日]

(十一月十日) 市木商 京城 鍾路二丁目九 一番地三○商 會 金泰基

取引停止

前場反弛 昨後場戰勝의報를入하야 反發氣味이든 市勢는 今朝의 外電의 一齊히 上海의完全包圍等의 好材가잇슴에도不拘하고 鈍感裡에 反히低弛商狀으로 推移되어 東新은 百五十圓臺를 再割하야 九圓五에 大引하고 鐘新도 다시二百三十二圓臺를보이며 前場을마치엇다。

後場底堅 後場은 東新一高 鐘新一高로 底堅寄付後 少堅裡에 東新은 다시百五十圓臺를 보엿고 鐘新、日産도底堅이엇다

再軟鈍狀氣迷

過度한低落의反撥과 戰勝好材에 反戾된 市勢는外電高, 戰局益益有利展開에不拘、今朝에는再軟化하야 東新百五十圓大臺再割을보이게되엿는데 어쩌 軟弱場面을 보고는 一般은 거의氣迷속에 빠저 어느方向으로도 行動을積極性잇게할수업다고하야 有力側도저의 傍觀態度로이다 結局低落한 市勢로보아 그러면 어市勢를老朽한 散할데 이고 低落場面을 보이고 아야하겟는가 또는이 賣方의再襲이 되어도 常許好의買場을 果하다시買進上商할것이겟는가? 勿論東新이 牛價 買하겟든 大五十餘日 昂騰한市勢이니 高價買도 多少警戒되지안는바아니오 또東新도 또一도桁外의市勢를 넘는지도모르는바이며 百五十圓臺까지 上伸하면서도 無數한 悲觀材料와 赤이以上의 惡材料로 不足이고 역시 押高를하엿스니 赤是大勢高를 實現하고 또 十二三圓餘高의 五圓高를 벗을수잇고 이제는 안될것이다

强材에는鈍感

東株減配說, 國際關係悲觀說으로 再昨朝落을告하야 軟材엔 敏感、안된 悲觀材料가 出來할것이니 상당한 主要鐵狀게 되고 한 商議도 잇다 ......

市場六感

[株] ......昨日의反發도 今朝의 反弛로 다시不味한商狀이데 ▲某側은 東京取引나 各地의取引로보아 群衆의買暮하는모양이니 押目買도危險하다고 ▲事實그러쩡이 업는바아니나 材料純好하다고 賣迫하는것으로도 危險할때가不無 ▲勿論東新이 八圓臺割이라도 보이게되면 押目을지나서 惡化하는 市勢로될수박게업슬것이나 ▲上進한다면 上勢를타시 다시 하는것이니 ▲目前保合을 主張하야 小鋼主義의 賣買는즐라도 長期戰을것든다면 赤是大局은 買가아닐가? ▲이數三日의動向은 注目할 要하는터이므로 警戒不忘裡에行動이可할듯 (金剛城)

[米] ......一段低落을 示할듯하고도 依然溜蔑勢를 버서나지못하고 小押後에는 必反撥 ▲株式은 連日軟調勢를呈하는데 米價는 正反對의 現象으로엄재一途를 示함은 此는 戰勝에 나는 것인가? ▲高價에는 有力實方의 利喰物이 續出하는모양이어나 賣方의 煎退物이 一掃하지못하는만큼 아즉도 高價를 남겨도 모양 ▲大阪은 이제부터 補給期가 給하는것 잇다하는 當地는 先限의 反撥를 示하엿스니 多少伸縮이 잇을것도 不集 (雪山)

鮮銀總裁에
川越丈雄氏說

鮮銀總裁의 後任問題에 就하야서는 最近一部에 辭表提出이 傳하여지는 一面 東京方面의 情報로는 當者의 對滿事務局次長이 던 川越丈雄氏의 就任說도 傳하는 모양으로 混沌하다

興中公司에서
棉花會社創立
北支棉增産企畫

【商通天津特電】北支農民을 救濟키爲하야 棉花의 買付를 行할 興中公司가 專히 奔走中으로天津의 同公司 프레스工場도 目下 工事를 急하고 잇는데 興中公司는 北支의 棉花增産과 耕種改良을 圖키爲하야 資本金三百萬圓의 北支棉作公司의 設立을 計劃中이며 資本金은 興中公司의 百萬圓外에 紡聯과 在華紡同業會 棉花同業會의 三團體에서 出資를 求하고 또한 同公司의 增産目標는 現在의 八百萬乃至九百萬擔을 一千二百萬擔에 達케할 方針이라한다

將來의 對策에 就하야서는 相當히 硏究할 材料가 必要하다

國債
傍觀裡에閑散

【東京電話同盟】稅制改革과 年末金融에 關해서는 不安이업스나 國際關係의 憂慮에서 新規買는 見合氣分이 濃厚하야 模様觀하야 全體的으로 保合狀勢이며 長期買物은 遊하야 實需는 極閑散이엇다

期米
續騰後에反弛

前場續騰 今朝는 當地晴天 日本內地 亦晴天으로 阪地初付 三十二圓六十七錢인 三丁高를 檢하고 當地는 三十圓五錢인 四丁低로 中은 三十圓十八錢인 三丁高로 先限은 各店의 買煽으로 三十圓二十錢인 三丁高로 揚을始한後 賣物이 出하야 七節 八十七錢으로 一時 奔騰하엿다 阪地八十七錢까지 八十四錢의 小弛를 件하야七節 二十六錢으로 結局 阪止七

▲二十三年物九八、三五
十八年物九八、〇五

十四節의 前場은 三十圓 後場反弛 後場은 三十圓十錢인 九丁低로 始據한後 二節 ○九錢으로 三節○六錢에 反弛하고 四節○四錢 五節○五錢으로 下落하엿다

다 結局 十九錢에 止揚하고

煎退利喰續出

當地市場은 朝鮮의 超大豐作이어 不拘하고 今回朝鮮米의 四、五十萬石買上說이 濃厚하야 唯一한 强材로 買物이 續出하야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當限、中限、先限 賣買建玉表 — 細數字 [illegible]）

正米
定期高로 京城奔騰

各地期近의 一錢高로 奔騰을 演하엿스나 依然取引은 閑散狀으로 推移이다 一等白米 二十一、四〇 四等三〇、六〇

仁川在米增加

日現在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一一三〇、九九八叺의 增加로 合計品은 如左하다
▲玄米四斗入三九、二〇二叺 五斗入四九〇叺 ▲正租四斗入三〇二三叺 五斗入一二四叺 ▲正租一、二二九叺 ▲大豆三、五九〇叺 ▲小豆三八〇叺 ▲大麥六一、〇六五叺 ▲小麥一二九叺 ▲荏子七五五叺 ▲裸麥一〇七叺 ▲綠豆一三六叺 ▲糯米三〇〇叺

古米三十叺賣買

釜山에서 古米鎭南浦四等 下米三十叺이나와 二十八圓四十錢으로 賣買가成立되엇다

仁川昂騰

買上을 目前에 앞두고 日本內地正米不足이 深刻을 傳하야 入荷는 逐日增加되어 鮮出側의 買進情勢로 産地는 高價持로 賣惜人氣가 又復强化하야 市價三十錢外 勢關을 硬하엿스나 船腹不足은 依然한 狀態를 繼續하야 目前一般의 高價人氣이다 ⊕銀坊主三等三〇、八〇 四等三〇、六〇 多摩錦三等三一、二〇 四等三一、〇〇 一等白米 四二二、〇〇

釜山堅調

實物은 三千叺 內外로서 一般新規實物은 賣買不振이나 今朝淸算高로 持米側態度強化하야 市價十錢高를 示하엿다 ⊕穀良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一等白米一二、七四

大邱上放

依然出廻薄으로 市中賣物이 減少되고잇는데 朝來淸算强調로 唱價十錢上放을 示하엿다 ⊕穀良三等三一、一〇 四等三〇、九〇 一等白米一二、

群山躍進

天候恢復으로 産地의 賣物이 相當하나 定期高와 買上의 募入米手當買氣旺盛으로 市價二十錢續進되엇다 ⊕銀坊主三等三〇、六〇 四等三〇、六〇 一等白米一二、七〇

木浦堅調

價位感으로 秘分賣控氣味의 市場이나 目前 買上을 앞두고 底意相當堅調이다 ⊕銀坊主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一二、七五

今日財界十日

◆米（單位錢）：大阪期米先限、京城正米（一等）、仁川正米（一等）等 [表細數字 illegible]
◆株（單位錢）：鐘紡新、東新、朝取、朝鐵、人絹 等 [表細數字 illegible]

海外經濟 九日

（紐育・倫敦 棉花・小麥・銀・爲替 相場表 — [illegible]）

銀行券 九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發行高表 — [illegible]）

鍋油粕·麥粉

◆阪神鍋粕 ◆阪神鍋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金銀價

◆大阪金利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金買入價格 （[illegible]）

對外爲替

對英一圓에 一志二片、對米 百圓에 二九弗八分一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京城·仁川·群山·木浦·鎭南浦·大邱·釜山 正租價 —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短期主要取組高◆ ◆算定代引日步◆ （株式相場表 — 大新、東新、鐘新、日産、同新、朝取、帝人、拓新、北紙、日鑛、朝鐵 等 前場·後場 寄付·大引·高値·低値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前場·後場 一節～十節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綿系 · 棉花 · 人絹 · 生糸 · 砂糖

◆大阪綿系◆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十日）

▲白米（斗、單位錢）多摩錦特等、二等、一等 ▲肥料（叺、單位錢）▲紙物 ▲燃料（斗、單位錢）▲京城府內薪炭 ▲雜貨 ▲布木 ▲海産物 ▲絲 ▲木材 ▲牛皮（乾白斤、單位錢）▲毛織物 ▲人絹織物 ▲杉材（正角）[細數字 illegible]

仁川 金錢(金融) 證券 益康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長六一九 五二三
期米 大 仁川海岸町